2007년 2월 석사학위 논문

# 인터넷 취재로 인한 언론인의 취재시스템 변화 연구

- 전국지 지역 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비교 분석 -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신문방송학과 정 승 호

# 인터넷 취재로 인한 언론인의 취재시스템 변화 연구

- 전국지 지역 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비교 분석 -

A Study on online Journalism and Newspaper News
Production System

In-depth Interview on National and Local
 Newspaper Reporter -

2007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대학원

신 문 방 송 학 과

정 승 호

# 인터넷 취재로 인한 언론인의 취재시스템 변화 연구

지도교수 박선희

이 논문을 신문방송학의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29일

조선대학교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정 승 호

### 정승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성재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양호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선 희 인

2006년 12월 6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ABSTRACT	V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ol> <li>온라인 저널리즘의 등장과 인터넷 취재</li> <li>인터넷 취재로 인한 변화</li> </ol>	
제 2 절 온라인 저널리즘에 관한 선행 연구	
제 3 절 연구 필요성	8
제 2 장 취재 환경의 변화	9
제 1 절 지방지 취재 환경	9
제 2 절 뉴스 취재 시스템의 변화	12
제 3 절 노동 여건의 변화	17
제 4 절 언론 내 조직 및 위상의 변화 2	23
제 3 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32
제 1 절 연구 문제	32
제 2 절 연구 방법	33

5
5
0
2
5
7
8
8
Ю
5
7
8
О
3
3
7
9
5

### 표 목차

く丑	1>	광주, 전남, 전북지역 가구 구독률	10
く丑	2>	광주, 전남, 전북지역 가구 열독률	10
く丑	3>	지역별 인구 및 신문사 수	11
く丑	4>	1주당 평균 기사작성 건수	18
<丑	5>	업무량의 정도 변화 추이	18
<丑	6>	부서별 하루 평균 근무시간	20
<丑	7>	소속 매체별 하루 평균 근무시간	20
<丑	8>	편집, 교열, 조사부 기자 수 변화	28
く丑	9>	심층면접 대상자의 분포	34
く丑	102	> 중앙지 F기자 하루 일과(2006년 11월7일)	51
く丑	112	> 지방지 B기자 하루 일과(2006년 11월2일)	52
く丑	122	> 향후노동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	.56

### 그림 목차

〈그림 1> 1980년대 뉴스제작 흐름도	. 23
<그림 2> 1990년대 CTS 시스템 구성도	. 24
(그림 3> 1993년 동아일보 편집국 조직도	. 25
〈그림 4> 2006년 동아일보 편집국 조직도	. 25
〈그림 5> 1994년 전남일보 편집국 조직도	. 26
〈그림 6> 2006년 전남일보 편집국 조직도	. 26
(그림 7> 취재영역 파괴 개념도	. 44

#### **ABSTRACT**

# A Study on online Journalism and Newspaper News Production System:

In-depth Interview on National and Local Newspaper
Reporter

Park, Sun-Hee

Advisor: Prof. Park, Sun-Hee, Ph.D.

Departmen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treatise is to examine that how news materials utilizing depth interview to nationwide newspaper internet through reporters and local newspaper reporters as the destination affect data selecting system, labor environment, organization and position and what the differences are. Reporters were in common recognizing that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ternet such as interactivity. simultaneity, mass send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and so on, became an essential tool of news gathering by promoting the efficiency of their job.

However, in spite of advantages of internet news gathering, they thought that Internet must be utilized as the assistant means, not as the main means of news gathering because of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Nationwide newspaper reporters who are not many do not have great change in news gathering method of their coming and going places, but in the case of local newspaper

reporters the visiting number of their coming and going places has been reduced and the method of coming and going has been changed as the one of visiting many places with staying at one place.

The phenomenon that the area of news gathering limited in the sphere that can move physically in the past is crumbling appeared notedly to nationwide newspaper reporters. Reporters were recognizing that they were a little estranged in the relationship with news gatherers owing to the internet news gathering, but in order to confirm the fact matter the role of news gatherers was still important. Relationship change with news gatherers was different between nationwide newspaper reporters and local newspaper reporters.

In the labor environment the working time of local newspaper reporters was shorter than nationwide newspaper reporters, but because of the shortage of laborers the intensity was higher. It was shown that the convenience of internet news gathering could function keeping a wick labor situation just as it was. Nationwide newspaper reporters recognized that due to the internet news gathering the reconstructing of indoor service employees was achieved, but local newspaper reporters considered that the change of organizations such as the merger and abolition of outdoor service employees as well as indoor service employees was greater. Specially, local newspaper reporters recognized that their position was weakened by advertisements, the additional job of sale business, the activation of internet news gathering, et cetera, beside news gathering.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s, this treatise summarizes that internet news gathering has changed news gathering system of traditional journalism, labor environment, the position of organization and members a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nationwide newspaper reporters and local newspaper reporters was greater in labor environment, organization and position than in news gathering system.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문제 제기

#### 1. 온라인 저널리즘의 등장과 인터넷 취재

인터넷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어떤 대중매체보다도 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다. 여론을 형성하고 대중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기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보다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이 기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 다르다는 주장의 근거로 인터넷의 상호작용성, 동시성, 익명성, 정보의 대량 송수신 능력 등 기존의 미디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술적 특성을들 수 있다(이동근, 2004).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은 수용자와 언론인 또는 수용자들간의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공간적인 거리에 구애를 받지않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월드와이드웹 덕분이었다.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월드와이드웹은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있는 정보라도 이용자가 필요한 때에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선별적, 심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황용석·권혜진, 2002, 38~40쪽).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들은 저널리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사건에 대한 개요를 파악하고 특정 인물을 인터뷰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공공문제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게시 혹은 교환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 저널리즘' 혹은 '디지털 저널리즘'으로 불리는 '온라인 저널리즘'(online journalism)의 시대가 본격화 된 것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은 흥미로운 것으로만 여겨졌을 뿐, 취재 필수품

은 아니었다.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보도자료나 전화, 인터뷰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 저널리즘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저널리즘의 영역은 점차축소되고 있다. 매스미디어 시대의 의제설정이나 사회적 여론 형성의 기능을 담당했던 신문 방송은 그 역할을 인터넷에 내주고 있다. 과거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 이를 전파했던 언론인들이 이제 역으로 사회적 의제가 무엇인지,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지닌 '접근권의개방'과 '선택권의 확대'가 불러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김준수, 2005, 163쪽).

인터넷은 또한 수용자의 위상도 크게 변화시켰다. 2005년 정부의 급식 단가 인상을 이끌어 냈던 부실 도시락 사건,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에 경종을 울린 신생아수난사건, 줄기세포 사진 중복 의혹 제기로 불거진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 등은 종전에는 수동적이었던 뉴스 소비자가 이제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정보를확인하고 선택하고 해석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 사회적 여론을 주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뉴스 생산에서부터 확산까지 인터넷은 오프라인 언론이 미치지 못한 영역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여론 형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 미디어의 수용자는 전 지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이며, 이런 면에서 온라인 저널리즘은 '전 지구적 공중'(global public)을 창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Volkmer, 1998).

인터넷 이용자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뉴미디어 시대 환경 변화가 가져온 언론활동의 변화로 시민들의 뉴스 생산이 손쉬워지고, 일반 시민의 뉴스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기자사회의 외연이 모호해지고, 기자간의 연대가 약화됐다는 점 등을 들 수있다. 또한 언론이 생산한 뉴스와 사회적 의제의 형성을 시민이 매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사회적 의제의 형성 과정이 한 단계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원락, 2005).

특히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취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도구로서 인터넷의 가치는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취재도구로 활용되기 전에는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미사일 종류와 발사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8·15 남북정

상회담 합의사항은 무엇인지, 음주운전자는 10년 전에 비해 얼마나 늘었는지 등과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 보도된 신문을 뒤지거나 전문서적 또는 관련 자료를 일일이 찾아봐야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디지털 기술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에서 기사에 필요한 배경 정보에서 용어 해설, 단편적인 사실 확인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 속보 경쟁을 벌이는 기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현장에서 노트북을 통해 곧바로 기사를 송고하는 상황은 이제 취재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윤영철, 2001, 194~195쪽).

#### 2. 인터넷 취재로 인한 변화

디지털 혁명을 상징하는 인터넷은 기존 취재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온라인 환경은 마감시간과 특종, 출입처 등 오랫동안 저널리즘의 상징으로 통해 왔 던 독특한 시간과 공간의 문화까지도 근본적으로 흔들어놓고 있다(임영호, 1998).

가상공간인 인터넷이 취재 영역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취재 공간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하 나는 취재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졌음을 뜻한다(윤영철, 200).

인터넷이 전통 저널리즘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고 대부분의 기자들이 뉴스생산 활동에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언론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수 있다. 그 이유는 언론사가 처해 있는 취재 환경과 조직 구조가 달라 인터넷을 취재 활동에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게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취재시스템과 노동여건, 조직 및 위상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는 언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지만 그 중에서도 취재시 스템의 변화는 괄목할만하다. 전국지1)의 경우 지역기자2)는 광역단체에 1~2명씩

<sup>1)</sup> 서울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라는 점에서 중앙지라고도 불린다.

<sup>2)</sup>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 상주하며 그 지역의 뉴스거리를 취재해 보도하는 기자를 일컫는다. 일반적으

상주하면서 1명 당 10~20개 출입처를 맡고 있다. 많은 출입처를 돌아다니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받고 추가정보를 얻기 위해 출입처 홈페이지나 포털뉴스를 검색한다. 이들에게 인터넷은 취재의 필수 도구가 됐다.

지역신문3) 기자들도 전국지 지역기자처럼 인터넷이 주요 취재 수단이다. 그러나 이들이 맡고 있는 출입처는 전국지 지역기자보다 적기 때문에 취재원과의 면대면 접촉기회가 많다. 따라서 촘촘한 뉴스그물(news net)4)을 쳐놓아 출입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국지 지역기자보다 먼저 알 수 있고 기사화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전국지 지역기자들이 지역신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인터넷 취재는 영역 구분도 허물었다. 전국지의 경우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지역의 사건이나 특정 사안을 본사가 먼저 파악해 지역기자에게 전달하거나 연합뉴스 등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보고 취재지시를 내리는 일이 종종 있다. 일부 전국지는 지역기자가 있지만 본사 기자가 파견돼 지역의 특정사안이나 화제 거리를 취재해 보도하기도 한다.

취재영역 파괴는 지역신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본사 기자가 취재 및 기사작성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기자<sup>5)</sup>를 대신해 해당 지역의 관청이나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지역지)<sup>6)</sup>의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현지 제보를 받아 직접 취재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 취재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메일 보도자료나 포털 뉴스, 게시판 검색에서부터 독자적인 조사나 확인 등 업무

로 주재기자로 불려왔으나 최근에는 지역기자로 부르는 전국지가 늘고 있다. 주재기자는 일제 강점기부터 쓰여 왔으며 일본식 잔재가 남아 있는 용어라는 점에서 지역기자로 바꿔 부르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sup>3)</sup>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를 의미하며 신문이 발행되는 한정된 지역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국지(중앙지)와 구별된다.

<sup>4)</sup> 터크만(Tuchman, 1978)은 뉴스매체가 불확실한 현실의 사건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걸러내어 뉴스화하는데 이를 촘촘히 쳐진 '뉴스 그물'(news net)이라고 불렀다.

<sup>5)</sup> 기초자치단체에 상주하며 지역의 뉴스거리를 취재해 보도하는 기자를 일컫는다. 전국지의 지역기자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기자로 부르기로 한다.

<sup>6)</sup>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크게 지역신문과 지역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신문은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소재지에서 발행되고 광역 및 자치단체 주민들을 독자로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의 구성원과 조직을 갖추고 있다. 지역지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소재지에서 발행되고 독자도 그 지역 주민들이며 소수의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가 추가돼 일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 업무량이 늘었다는 것은 노동시간 증가와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취재영역이 같은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 신문 기자 간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감시간이 긴 전국지 지역기자는 상대적으로 마감시간이 짧은 지역신문 기자에 비해 노동 시간이 길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역신문 기자에 비해 노동 강도가 더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역신문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과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취재기자가 편집과 교열까지보는 등 노동 강도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은 언론사 내부 조직의 변화를 초래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자 고유의 업무에 속했던 것들이 인터넷으로 인해 축소 또는 사라지면서 편집부와 조사부, 교열부, 사진부 등의 인력이 크게 줄었다. 이는 취재환경이 열악한 지역신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언론사 내부 조직 변화와 더불어 기자들의 위상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 신문 지역기자들은 본사에서 인터넷으로 취재하고 지역면 기사가 통신사에서 제공 되는 뉴스로 채워지면서 본연의 업무인 취재 및 기사작성보다는 판매나 광고 업무 에 치중하게 돼 '기자 아닌 사원'으로 전략하고 있다.

#### 제 2 절 온라인 저널리즘에 관한 선행 연구

온라인 저널리즘은 이미 뉴스시장에서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았고 학문 영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가 언론인의 취재 시스템과 노동 여건, 그리고 구성원들이 속한 조직과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와 연관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온라인 저널리즘과 전통 저널리즘을 비교한 연구이다. 여기서는 온라인 저널리즘과 기존 저널리즘의 다른 특성과 그에 따른 저널리즘의 가치나 행위의 변화를 전망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Pavlik, 1997; Hall, 2001; 윤영철, 2001). 특히 온라인 저널리즘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연구(Massey, Brian L. & Levy, 1999;

Ha, Louisa & James, 1998; Schultz, 2000)는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대안적 성격의 연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박선희, 2002, 2001).

최근 연구로 황용석(2005)은 온라인 저널리즘의 매체적 특성이 뉴스의 전달과 소비방식, 수용자와의 관계, 뉴스 스토리의 구성방식, 그리고 전달속도 등 전반적인 과정을 변화시켰다며 전통 저널리즘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권상희(2004)도인터넷이 언론 취재 보도 환경과 기사구성 방식, 뉴스 구독, 소비 방식과 뉴스의 개념을 크게 바꿔 놓았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뉴스 생산과정에서의 인터넷 활용 연구이다. 인터넷이 취재행태와 관련된 뉴스 생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Garrison, 1995, 1997, 2000; Miller 1998; Schultz, 2000; Singer, 1997, 1998, 2001; Williams, 1998; Davis, 1999)는 기자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인식하며 취재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데이비스(Davis, 1999)는 인터넷이 기자들을 물리적인 취재 구역에 한정시킬 필요성을 감소시킨다며 선거 캠페인 취재를 예로 들었다. 그는 기자들이 특정현안에 대한 정치인의 견해가 진실된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출입처에 상주하거나 여러 취재원들을 접촉하기보다는 데이터 검색을 통해 이 정치인의 과거 발언등을 확인하고 현재의 것과 비교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황용석과 권혜진(2002)은 기자들의 인터넷 활용은 전통적인 뉴스 수집, 가공, 처리 과정에서 변화를 불러왔는데, 이는 인터넷이 하나의 매체로 기능할 수 있을 뿐아니라 뉴스 취재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인터넷이 개방적이고 쌍방향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슐츠(Schultz, 2000)는 기자들의 인터넷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데이터 검색기능과 이메일을 제외한 온라인 대화나 온라인 포럼 등 다른 기능에 대한 기자들의 반응은 대단히수동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슐츠는 뉴스제작과정의 시간적 제약 때문이라고설명한다. 인터넷 취재 효율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저널리스트의 역할 및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윤영철(2001)은 온라인 저

널리즘은 매체 기술 및 기능의 통합을 지향하며 더욱 분화된 분야의 전문지식인형으로서의 저널리스트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며 언론전문직도 정보검색사, 해설가, 온라인 공동체 관리자, 디지털 컨텐츠 프로듀서의 기능이 포함된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임영호(1998)도 인터넷 시대에 정밀 분석과 해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보검색 능력이 요구된다며 이제 언론인은 정보검색사나 사서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저널리즘 시대에 온라인 저널리스트의 역할과 뉴스 소비자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한균태·반현, 2001; 윤석홍·박재영, 2002)도 여기에 속한다.

넷째는 온라인 저널리즘과 종사자의 노동여건, 조직 및 구성원 위상과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이다. 스프롤과 키에슬러(Sproull & Kiesler, 1991)는 조직 내에서 테 크놀로지 도입에 따른 새로운 직무수행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낳고 사람들의 노동 방식이나 상호작용의 유형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상현(1996) 은 신문제작의 신기술인 CTS(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 도입으로 노동 특성 변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 한다. 임영호(1998)는 온라인 저널리즘이 가져오는 변화는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 서 뿐 아니라 저널리즘 개념 자체의 재형성, 또 언론의 직업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 근해야 한다며 인터넷 테크놀로지로 변하고 있는 뉴스노동 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수용자 위상 변화에 관한 연구(Happer, 1998; Lasica, 1996; Pugh, 1996)와 함께 뉴스를 만들고 전달하는 오프라인 뉴스 생산자의 위상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싱거(Singer, 1997, 1998)는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언론인의 역할이 단순히 정보의 전달자나 수집자 기능보다는 신뢰도 높은해석자로서의 기능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라인 환경이 정보 과잉을초래해 뉴스 미디어의 정보 전달 역할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Kawamoto, 1998)도 있었지만 새로운 전자 매체가 보급되더라도 훈련받은 언론인이나 편집자와 같은 전문직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Bartlett, 1994)가 훨씬 많다.

조직과 관련해 임영호(1998)는 온라인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작업양식과 직종이 도입되면 기존의 양식이나 직종과 잠재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조직 내 기능 재배치와 권력관계 변화를 진단했다. 코취(Koch, 1991)는 기자와 조사부 사서 직종을 예로 들며 정보검색 기능은 기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자질이 될 것이며, 사서 역시 지금까지 기자 고유 직무에 속했던 부분을 상당히 흡수하면서 기사 작성과정에서 중요한 동반자의 위상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했다.

#### 제 3 절 연구 필요성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인터넷을 매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저널리즘의 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온라인저널리즘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돼왔다. 연구 중에는 인터넷이 신문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자들의 인식 연구(김사승, 2003)나 인터넷 신문 기자들의 기사 취득경로 및 상호작용 활동에 관한 연구(권상희·김익현, 2005) 등이 있었지만 이는 기자들의 뉴스 생산 과정에만 초점을 맞췄다. 인터넷이 언론 종사자의 노동여건이나 조직 및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임영호, 1998) 역시 개념적 논의에 머물렀고 실증적 검증보다는 예측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은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그 변화된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터넷이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들의 취재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자들의 노동 여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신문사 조직과 구성원의 위상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취재 영역은 같으면서 조직은 서로 다른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이 취재 여건이 열악한 지역신문 기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노동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지 진단하고, 향후 지역 언론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 제 2 장 취재 환경의 변화

#### 제 1 절 지역신문 취재 환경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는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수 있다. 특히 지역신문의 경우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열악한 취재 환경을 완화시킬 가능성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취재는 전국지 지역기자 보다는 지역신문 기자들의 뉴스 생산 활동이나 조직 및 위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신문의 취재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지역신문의 경영난은 낮은 구독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언론연구원과 한국언론재단의 가구 구독률 조사 결과 지역신문의 경우 1996년에 15.1%였으나 2002년에는 5.8%에 불과했다(한국언론연구원, 1996; 한국언론재단, 2002). 특히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지역신문 가구 구독률은 2002년에 4.4%에 불과해 이들 신문사의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광고주협회가 2006년 10월 발표한 신문매체 이용 및 반응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광주, 전남, 전북지역 모두 전국지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가구 구독률은 동아일보(10.5%), 중앙일보(10.2%), 한겨레(3.4%), 경향신문(3.1%), 광주일보(3.1%) 차례였다. 전국지의 강세는 전남과 전북에서도 비슷했다. 전북지역에서는 1위부터 7위까지를 전국지에 내주고 전북일보가 1.1%로 7위를 차지했다. 전남에서는 동아일보(5.3%), 광주일보(3.9%), 중앙일보(3.4%) 차례였다(미디어 오늘, 2006년 11월3일자).

한편 <표 2>에 나타났듯이 주간 열독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광주에서 광주일보의 열독률은 10.5%로 동아일보 19.3%에 비해 8.8%나 뒤졌으며 전남에서도 광주일보가 4위, 전북에서는 전북일보가 5위로 나타났다(미디어 오늘 2006년 11월3일자).

#### <표 1> 광주, 전남, 전북지역 가구 구독률

단위:%

고	ス
7	$\overline{}$

#### 전남

#### 전북

구분	구독률
동아일보	10.5
중앙일보	10.2
한겨레	3.4
경향신문	3.1
광주일보	3.1
조선일보	2.0
서울신문	1.0
한국경제	1.0
스포츠조선	1.0
전남일보	0.7

구독률
5.3
3.9
3.4
2.0
2.0
1.4
1.4
1.4
1.1
1.1

구분	구독률
동아일보	5.6
중앙일보	5.3
한겨레	3.9
조선일보	3.1
한국일보	1.9
경향신문	1.4
국민일보	1.4
전북일보	1.1
매경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0.8

(출처:미디어 오늘. 2006년 11월 3일자)

#### <표 2> 광주·전남·전북지역 가구 열독률

단위:%

광주

전남
----

#### 전북

구분	열독률
동아일보	19.3
중앙일보	16.6
한겨레	11.2
광주일보	10.5
스포츠서울	7.8
경향신문	5.8
전남일보	4.4
조선일보	4.1
스포츠조선	3.7
일간스포츠	2.0

구분	열독률
동아일보	11.7
스포츠조선	8.7
중앙일보	7.5
광주일보	7.0
한겨레	6.1
전남일보	6.1
조선일보	5.3
한국일보	3.6
매일경제	3.6
스포츠서울	3.6

열독률
13.1
10.6
9.2
8.4
7.2
6.7
6.1
4.2
3.6
3.1

(출처:미디어 오늘. 2006년 11월 3일자)

차재영·강미은(2004, 25~26쪽)은 지역신문이 독자로부터 사실상 외면당하면서 지역신문들이 충분한 지대수익이나 광고 수익을 올리기 어렵고 따라서 경영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표 3〉의 인구/신문사 비율에서 보듯이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영남지역보다 불리한 호남지역에 이처럼 많은 신문이 난립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방 신문의 시장 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 특정 지역의 제한된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의 신문사들이 생겨이들 사이에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지역별 인구 및 신문사 수

단위:천명

구분	인구수	신문사 수	인구/신문사
인천·경기	11,459	18	637
강원	1,487	2	744
충북	1,467	5	293
대전·충남	3,214	5	643
전북	1,891	9	210
광주·전남	3,349	14	239
대구·경북	5,206	8	651
부산·울산·경남	7,656	13	589
제주	513	4	128

(출처:차재영·강미은 2004. 한국신문협회)

광주지역 신문시장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이의정·민형배, 2002).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문사가 많다는 점과 둘째, IMF 체제 이후 신문사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이 널려 알려져 있는데도 신생 신문사가 생겨나고, 모기업이나 신문사가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발행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광주지역 신문사들의 경영 상태는 최근 수년 동안 크게 악화돼 연간 적자폭이 35억~5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에 이르러서는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매일 등 주요 지방신문사의 재무 상태에 대해 계속 기업 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판정이 내려졌다(시민의 소리, 2001년 4월 25일자). 이들 세 신문사의 2000년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일보의 부채 총액은 283억 원,

전남일보와 광주매일은 각각 299억 원과 1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 비해 광주매일의 부채가 다소 줄었을 뿐 광주일보와 전남일보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악화를 견디다 못한 광주지역 신문사들은 대량 감원과 대폭적인 임금 삭감을 통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최재호, 2003). 지방 신문사들의 열악한 경영 상태는 인력 확보와 시설 투자에 악영향을 주는데, 특히 낮은 임금 수준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우수한 지방 인재들을 충원할 수 없어 결국 신문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차재영·강미은, 2004).

#### 제 2 절 뉴스 취재 시스템의 변화

인터넷을 활용한 뉴스 취재 시스템의 변화는 취재관행과 취재도구, 취재내용 등 3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통 저널리즘의 취재관행인 출입처와 취재원과의 관계 변화를 들 수 있다. 기자들의 취재와 기사 작성은 시간과 함께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공간 제약에서 오는 취재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뉴스공급을 보장받기 위해 고 안된 취재관행 가운데 하나가 출입처(beat) 시스템이다(Tuchman, 1978). 인터넷은 전통적인 취재시스템 중 하나인 출입처 개념을 바꿔놓았다. 정부기관을 비롯한많은 출입처에서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 출입처라는 공간적 제약 없이 자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재하려는 지역사회와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가 인터넷의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이제 더 이상 통계를 알아보기 위해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된다. 굳이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회견문을 볼 수 있고 동영상을 통해 회견장 분위기도 살필 수 있다.

전국지 지역기자의 경우 많은 출입처를 순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경찰서, 법원, 검찰, 교육청, 노동청, 환경청 등 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담당하고 있지만 주로 한 곳에 머물며 취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출입처

에 가지 않고서도 이메일로 보내준 보도자료 만으로도 기사화 할 수 있어 인터넷을 취재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지역신문 기자들도 출입처에서 이메일을 통해 보도자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신문 취재기자 수가 크게 줄면서 기자들이 출입처에 나오지 않고 편집국이나 한 곳의 출입처에 머물며 취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상의 가상 지리 공간(virtual geography)에서는 물리적인 장소라는 것이 의미를 잃고, 취재에서도 공간적 이동은 별다른 장점을 갖추지 못해 '원격 저널리즘'(distance journalism)이 가능해졌다"는 코클란(Cochran, 1997)의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관중심의 출입처 제도는 100여 년간 언론계의 관행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언론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재영 (2005)은 기자 재배치 관점에서 새로운 뉴스 생산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지 금처럼 기자를 출입처라는 기관에 경직되게 묶어두는 게 아니라 특정 주제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안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도되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999년부터 사회부 경찰팀을 중심으로 출입처 벽을 허무는 시도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화일보도 사회부 경찰기자 뿐 아니라 행정팀에 사안별 기동취재와 기획력에 중점을 두는 출입처 개념 파괴를 적용했지만 의미 있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김일, 2000). 이는 아직까지도 언론계가 출입처중심의 기사 발굴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전국지는 팀별 취재 등 출입처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신문은 인력 부족 탓에 이런 논의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정보원이나 취재원과의 관계 변화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언론인의 취재활동은 사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뉴스 보도 형식도 대부분 정보원으로 하여금 그 사안에 관해 말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한다(이동근, 2004). 인터넷 취재가 활발하기 전에는 취재 과정에서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면대면 접촉을 통해 기사의 단초가 되는 정보를 캐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취재나 기사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담당자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관련 기사나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그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정보원의 활용도가 줄어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 가령 인터넷을 통해 자치단체특정 사업에 관한 정보를 파악했다 할지라도 사업의 문제점이나 진전된 상황 등중요한 사실(fact)은 정보원을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메일이나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활용보도(Computer-Assisted Reportin g)7) 등이 새로운 취재도구가 됐다는 점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이메일은 취재공간을 넓힌 도구 가운데 하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상호작용성은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권상희·김익현, 2005). 최영(2002)은 한국 인터넷 미디어들은 이메일, 채팅룸, 온라인 투표/설문조사, 토론 포럼, 독자 투고, 전자게시판 등의 상호작용 기제를 주로제공하고 있으며 이메일이 상호작용 기제 가운데 취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재단이 2003년 기자들이 취재 활동을 위해 전화, 이메일, 팩스, 편지 등채널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화, 이메일, 팩스, 편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메일이 취재 과정에서 활용되는 하나의 유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자들이 하루 평균 스팸 메일을 제외한 이메일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10건 미만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관련된 이메일 수신 건수는 '1-5건'이 50% 이상이었다. 누구로부터 이메일을 가장 많이 받는지를 알아본 결과 일반 독자나 시청자, 취재원, 기사와 관련된 사람,

<sup>7)</sup> CAR란 용어는 미국의 언론인인 테스 치치오코(Tess Chichioco)가 1989년 미국의 언론전문잡지인 에 디터 엔 퍼블리셔(Editors & Publisher)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 후 진 와드(Jean Ward)나 케더린 한센(Katherline Hansen)과 같은 학자들이 신문기자들의 취재보도 경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CAR라고 부르게 되었다. CAR는 저널리즘에서 컴퓨터 사용의 두 측면을 포괄한다. 첫째, 컴퓨터를 사용해 정보를 검색해 다른 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것을 재생하는 것, 즉 온라인 리서치(online research)를 말한다. 둘째, 뉴스기사의 정보로서 원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컴퓨터로부터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즉 데이터베이스 저널리즘(database journalism)이다. 황용석·권혜진(2002) 참고.

전문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서별로는 먼저 정치부 기자는 독자나 시청자, 기사와 관련된 사람, 취재원, 동료기자 등의 순으로 이메일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로부터는 전혀 이메일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제부와 문화부 기자들은 독자나 시청자가 아닌 취재원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 순으로 일반 독자나 시청자, 기사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답했다(한국언론재단 2003). 이는 언론사 편집국 내 조직에 따라 이메일 수신건수와 이메일 송신자가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존에 주로 면대면 접촉이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기자들과 독자나 취재원들 간에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전자우편이 그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온라인 취재는 단순히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 뿐 아니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취재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이러한 작업은 자료의 장단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서부터 확보된 자료에 대한 2차적인 분석도 가능하게 됐다. 가령 인구 당 범죄 발생률이나 화재 발생시 119 소방차가 가장 먼저 출동하는 도시 등에 관한 기사를 쓸 수 있는 것은 정부기관 등의 공적인 정보 혹은 기록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데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정보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과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때로는 확인이 쉽지 않았던 특정 인물의 신원, 기록, 행보 등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기사를 취재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던 수준에서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시작됐던 컴퓨터 활용보도(CAR)이다. 게리슨 (Garrision, 1997)과 밀러(Miller, 1998)는 CAR를 이용해 기자들이 취재 아이템 색출, 기사의 배경상황 이해, 언론사 내부자료 검색, 타 매체 검색, 전문가 취재원 발굴, 취재대상 검색 등에서 다양한 취재능력을 갖게 됐다고 보았다. 인터넷이 온라인 영역의 대표주자로 성장하면서 CAR는 사실상 인터넷을 이용한 취재의 개념으로 이해되기에 이르렀다.

셋째, 취재 전 정보 파악은 물론 기사 소재 발굴과 공중 여론 탐색 등 취재 내용

도 바뀌었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기자들이 특정 아이템을 취재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뉴스 사이트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관련 뉴스를 검색함으로써 사건발생의 원인과 배경, 경과, 전문가 의견 등을 알 수있다. 인터넷이 취재 시스템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터넷 검색에 능숙한 기자는 그렇지 못한 기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기사에 담아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한마디로 인터넷은 정보화 시대에 기자들에게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흥미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인터넷 취재는 기사 소재 발굴에도 도움을 주며 이리저리 월드와이드웹을 다니다 보면 생각지 않는 기사거리를 확보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Garrison, 1998). 가령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카페, 전문자료, 관련 뉴스 등을 검색하면서 기삿거리를 찾을 수 있다. 블로그나 카페에서는 전문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접하거나 새로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뉴스 검색에서는 타 언론사가 다룬 기사나 취재원 등을 손쉽게 확 인해 기사를 작성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자들은 또한 인터넷을 통해 공중의 여론이 무엇인지를 탐색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는 대부분 이용자들의 의견게시판이 있다. 의견게시판은 인터넷 이용자가 개별 기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다른 네티즌의 의견에 대해 동조하거나 반박하는 메시지를 남기기 때문에 특정 사안과 관련된 여론을 알아볼 때 유용하다. 이용자들의 토론방을 통해서도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 신문들은 요즘 이런 사이버공간의 의견을 기사에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자가 취재해 기사화하는 것보다 이용자(네티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여론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은 취재 범위나 영역의 구분도 모호하게 만들었다. 전국지 지역기자가 전국의 사례를 취합해 기사를 작성할 때 다른 지역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다른 지역의 동료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해 보내주기도 하지만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가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 기사 주제에 부합하는 케이스를 찾을 수 있다. 공간에 기반을 두고 취재 영역이 구분되던 과거의 취재 관행이 인터넷 취재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 제 3 절 노동 여건의 변화

인터넷은 동시성과 정보의 대량 송수신 등 이점 때문에 기자들의 취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 실시된 '한국의 기자노동'(박소라, 이창현, 황용석, 2001)8)에 따르면 인터넷 도입 이후 기자들은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컸다. 구체적으로 취재활동 변화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도는 평균 3.91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왔다. 그리고 '융통성 향상'도 평균 3.53점으로 대체로 높은 동의도를 나타냈다. 만족도 및 전문성이 향상되었냐는 질문에도 3점 이상의 동의도가 나왔다(황용석, 권혜진, 2002, 48쪽).

인터넷이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로 인해 기자들의 일거리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업무 종류가 늘었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도는 평균 3.11점으로 나타나 인터넷 도입에 따른 노동 여건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기자들의 업무량이 늘었다는 것은 한국언론재단이 실시한 '언론인 의식조사'<sup>9)</sup>에서 도 잘 나타난다.

< 표 4>에서 보듯 2005년 조사에서 오프라인 기자의 주 평균 기사 작성 건수는 15. 4건으로, 이를 1995년부터 살펴본 결과 2003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2001년 조사에 비해 4.1건이 늘었고(15.9건) 2005년은 2003년보다 약간 줄어든 15. 4건으로 나타났는데,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 건수는 1건 늘어난 반면, 기획 해설기사와 사설 칼럼 기사 작성 건수는 줄어들었다(한국언론재

<sup>8)</sup> 이 조사 결과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주관으로 서울과 지방, 신문과 방송을 모두 포괄하여 총 131명의 취재기자에게 7일간의 다이어리 및 서베이 조사를 실시해서 나온 것이다. 자료출처: 박소라, 이창현, 황용석, 한국의 기자노동(서울: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2001), 황용석·권혜진(2002) 참고.

<sup>9)</sup> 한국 언론인의 가치와 태도, 윤리의식, 전문성, 업무환경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언론재단이 1989년 이래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조사연구사업이다. 조사는 전국의 신문, 방송, 통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인터넷 미디어에 종사하는 온라인 기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단, 2005, 82쪽).

<표 4> 1주당 평균 기사작성 건수

단위:건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오프라인)	2005(온라인)
스트레이트	11.2	8.3	9.4	7.1	11.3	12.3	12.9
기획· 해설	4.5	2.8	3.0	2.9	3.8	2.8	3.2
사설· 칼럼		0.3	0.3	1.8	0.9	0.3	0.7
총 작성건수	15.7	11.4	12.7	11.8	15.9	15.4	16.7

(출처:한국언론재단, 2005)

기자가 느끼는 업무량의 정도를 1995년 조사부터 살펴보면 <표 5>에서처럼 '많다'고 느끼는 기자의 비율이 1995년 76.2%에서 1997년 72.2%, 1999년 70.6%로 낮아지는 추세이다가 2001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한국언론재단, 2005, 168쪽).

<표 5> 업무량의 정도 변화 추이

단위:%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오프라인)	2005(온라인)
너무 많다	21.4	19.5	19.5	23.4	22.3	18.6	34.3
많다	54.8	52.7	51.1	48.4	48.9	52.1	52.0
보통이다	21.3	27.2	28.7	27.5	28.2	28.8	13.7
적다	1.8	0.2	0.7	0.6	0.6	0.5	0.0
너무 적다	0.8	0.2	-	0.1	0.0	0.0	0.0
사례수	1.010	1000	703	779	713	930	102
평균 (5점 만점)	3.98	3.91	3.89	3.94	3.93	3.89	4.21

(출처:한국언론재단, 2005)

기자들의 일거리가 늘어난 것은 일선 취재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이메일 보도자료를 검색하고 이 가운데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내

기사화해야 하고 지역이나 출입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챙기기 위해 뉴스 사이트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저널리즘이 업무량을 증가시킬 것이란 예측은 몇몇 연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코취(Koch, 1991)는 인터넷이 언론의 해석 및 탐사 기능을 더 강화시켜 과거보다 업무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뉴스 형식이 인용이나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쳐 언론의 전문성이나 해석기능이 제한적이었으나 온라인 미디어는 기자들이 독자적인 확인과 조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해석기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미디어의 속성이나 이용습관에 맞게 뉴스 형식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뉴스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기자들의 일거리는 많아질 것이란 코취의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싱거(Singer, 1997, 1998)도 미국 일간지에 종사하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언론인의 역할이 단순히 정보의 전달자나 수집자 기능보다 신뢰도 높은 해석자로서의 기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터넷 취재로 업무량이 늘었다고 해서 노동 시간이 증가했다고 단정할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터넷 취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노동시간과 이후의 노동시간을 비교 분석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또 업무 종류가 늘었다고하지만 컴퓨터를 활용한다면 노동 시간은 과거보다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컴퓨터로 작업하는 기자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나 하루 일과 등을 살펴보면 노동 강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다.

2003년 기자들의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 04분 (664. 4분), 일주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66.4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가 집계한 500명 이상 사업장의 2002년 주당 평균 노동시간 44.9시간보다 무려약 22시간 많은 것이다(한국언론재단, 2003, 24쪽).

#### <표 6> 부서별 하루 평균 근무시간

단위:분

부서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체육/ 생활부	국제/ 북한부	사진/ 카메라	편집/ 독자/ 조사	취재 일반	논설 위원
근무 시간	700.8	712.9	669.7	644.9	660.0	641.8	655.7	582.3	762.2	588.6

(출처:한국언론재단, 2003)

#### <표 7> 소속 매체별 하루 평균 근무시간

단위:분

매체	중앙 일간지	경제지	스포츠지	지방 일간지	중앙 방송사	지방 방송사	특수 방송사
근무시간	666.0	652.5	657.3	621.5	823.5	663.8	678.7

(출처:한국언론재단, 2003)

근무시간은 조직 내 부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표 6〉에서 보듯이 취재 일반을 제외하면 사회부 기자들이 하루 평균 712.9분(11시간 53분)으로 근무시간이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치부 기자들로, 하루 평균 700.8분(11시간 41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근 부서인 편집/독자/조사부 기자 582.3분(9시간 42분), 논설위원 588. 6분(9시간 9분)으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타부서 기자들에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경찰/법조 출입기자들이 766.3분(12시간 46분)으로 월등히 많았고 다음은 정부부처 출입기자가 703. 2분(11시간 43분)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7>에서처럼 방송 3사 기자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무려 823. 5분 (13시간 43분)이나 되었다. 반면, 지방신문 기자들은 가장 적은 621. 5분(10시간 22분)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재단, 2003, 25쪽). 이는 지방신문이 중앙 일간지에 비해 마감시간이 빠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지는 1차 마감10)을 한 뒤에도 쏟

<sup>10)</sup> 중앙 일간지는 대체로 1차 마감이 오후 6시다. 이후 밤 9시 반, 밤 12시, 새벽 2시에 2, 3 .4차 마감을 한다. 이 같은 마감을 신문판갈이라고 한다. 지역에 배달되는 신문은 현지 인쇄 사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는 새벽 2시까지 마감한 지면이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배달되고 광주에서는 밤 12시까지 마감한 지면을 볼 수 있다.

아지는 새로운 뉴스거리를 지면에 반영하기 위해 몇 차례 더 신문을 제작한다. 이 때문에 사회부 기자들은 밤늦게까지 사건사고를 체크하고, 정치부 기자들은 정치인이나 중요 인물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등 지역신문 기자들에 비해 노동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지역신문 기자들은 대체로 밤 9시 이전에 신문제작을 끝내기 때문에 마감시간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재 업무에서 손을 뗀다.

지역신문 기자들이 전국지 기자들보다 노동시간이 적다고 해서 노동 강도가 떨어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 2001년 실시한 '취재기자의 노동실 태'<sup>11)</sup> 조사 결과 지역신문 기자가 전국지 기자보다 노동 강도가 더 센 것으로 나 타났다.

열악한 재정과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역신문 기자들의 노동 강도는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언론재단이 2004년 실시한 지역신문 경영실태조사 결과 지역신문 기자의 66.9%가 취재나 편집을 전담하고 있고, 광고나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도 37.0%나 됐다(미디어오늘, 2006년 4월 12일자).

실제로 광주지역 지역신문 기자들은 1998년 교열부가 없어진 이후 기사 작성 후교열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노동 강도가 강화됐다. 이들은 기사를 데스크에 넘기고난 뒤 편집부 기자들의 레이아웃을 거쳐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대장을 보고 오탈자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이들은 교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신문 지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역신문 기자들의 노동 강도가 심화된 데는 인터넷 취재가 일정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처럼 취재기자가 출입처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메일로 보내온 보도 자료를 보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고 현장 취재를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인 3역'의 노동 여건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온라인 취재로 부서별 노동 여건의 변화나 노동 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sup>11) 2001</sup>년 10월2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언론사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다이어리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전국지 교육면 담당기자와 지역신문 시청 출입기자를 샘플링해 하루 일과를 비 교하며 노동 강도를 측정한 결과 지역신문 시청 출입기자의 노동 강도가 더 센 것으로 나타났다.

김사승(2003, 68~69쪽)은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포커스그룹 토론을 통해 인터넷 취재가 부서별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인터넷 취재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서는 국제부로 인터넷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현장 상황은 물론 다양한시각의 분석들을 국내에서 챙길 수 있어 해외특파원이 역할과 위상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육부의 경우 해외진출선수들의 취재를 위해 인터넷 취재는 필수적이 됐으며, 사회부는 인터넷을 취재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 창구로, 또인터넷 게시판이나 각종 사이트의 여론조사결과를 사건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서와 달리 정치인과의 개인적 접촉이 주요취재수단인 정치부기자들의 경우 인터넷 취재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을 통한 취재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취재기자의 마감시간 연장과 근무시간 연장 등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부의 경우 해외 취재원이 인터넷에 산재하게 됨에 따라 정보의 확인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취재과정이 훨씬 복잡해졌고 가능하면 최신기사를 수렴하기 위해 마감시간을 늦춤으로써 이전보다 취재시간이 양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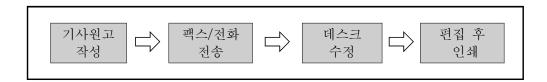
지역신문의 경우 편집국 내에서 노동 강도가 강화된 부서로 사회부와 지역기자를 담당하는 지역뉴스부, 사진부 등을 꼽을 수 있다. 사회부의 경우 적은 인원으로도 인터넷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기자가 전국지 지역기자처럼 여러 개 출입처를 맡게 되고 이들 출입처를 커버하면서 기사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뉴스부의 경우 취재 및 기사작성 능력이 떨어지는 지역기자를 제쳐두고 본사에서 직접 취재해 기사화하는 경우가 늘면서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사진부는 대규모 인력 감축 이후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일부 기자들이 취재까지 맡고 있어 과거에 비해 노동 강도가 세졌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취재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신문의 경우 인터넷 취재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부서, 가령 사회부와 지역뉴스부, 사진부 등에서 노동 강도가 강화될 수 있다.

#### 제 4 절 언론 내 조직 및 위상의 변화

컴퓨터는 미디어 환경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표적인 예가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를 신문에 인쇄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 백 년 동안 언론계 관행이었던 납 활자를 몰아내고 전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케 한 것도 컴퓨터의 파워였다. 컴퓨터는 신문제작의 CTS화, 언론계의 인터넷 및 데이터베이스산업 진출 등 매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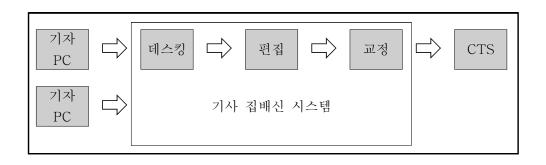
1980년 후반까지만 해도 신문은 원고지에 기사를 작성하고 납 활자로 인쇄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발행되었다. 신문의 뉴스제작과정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 원고지에 기사를 작성해 팩시밀리로 전송하거나 취재기자가전화로 원고 내용을 전달할 경우 내근기자가 이를 받아쓰는 신문제작 환경은 CTS(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컴퓨터 조판 시스템)가 도입되면서 급속히 바뀌었다. 우선 기자가 특정 뉴스를 취재해 작성한 원고는 데스크에게 전송되고데스크는 이를 수정해 다시 기사 집배신 시스템에 전송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원고는 컴퓨터에 입력돼 편집기자가 지면 레이아웃을 한다. 이를 제작국에서 컴퓨터로 조판한 뒤 필름으로 인쇄해 최종적으로 신문을 인쇄하는 과정이었다. 이 단계까지는 취재기자에게 PC가 지원되지 않아 기자들은 원고지로 기사를 작성해 넘기면 언론사내에 있는 여직원들이 이를 컴퓨터 파일로 전환해 편집, 조판하는 단계였다.

#### <그림 1> 1980년대 뉴스제작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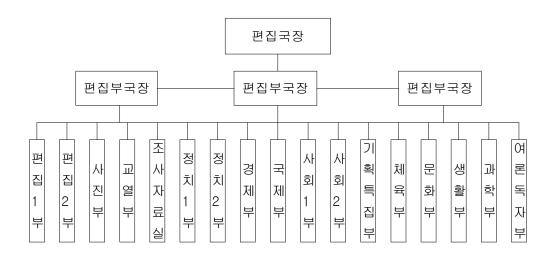
1990년대 초반이후 PC기술의 핵심인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램의 급속한 발달과 가격 인하로 PC의 대중화시대가 열렸다. 이때부터 언론사들은 개별 기자에게 기사작성용 PC를 지급했고 이를 통해 언론사의 신문제작은 사실상의 통합전산망을 구축했다<그림 2 참조>. 즉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랜(LAN)이나 모뎀 등을 통해소속 언론사에 전송하면 데스크가 이를 수정하고 편집자는 완성품으로서의 기사를 배치하는 지면 레이아웃을 짜고 컴퓨터 조판을 거쳐 인쇄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단계는 199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마무리됐다(허행량, 1999).

#### <그림 2> 1990년대 CTS 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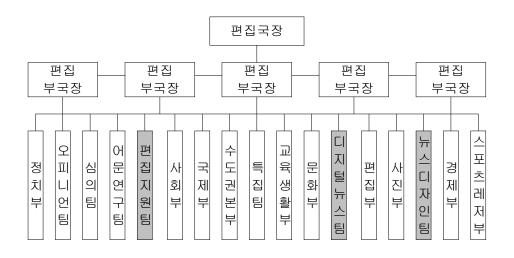


이 같은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매체 환경은 급속히 변했고 언론사 조직 및 구성원들의 위상에 영향을 미쳤다. 10년 전과 지금의 중앙사와 지방사 편집국 조 직형태를 비교해보면 뉴 테크놀로지 확산에 따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그림 3>은 CTS 체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동아일보 편집국 조직도이며 <그림 4>는 완 벽한 컴퓨터 조판 시스템을 갖춘 상태의 편집국 조직도다. 13년 사이에 편집국 부 서 숫자는 차이가 없으나 교열부와 조사자료실이 없어진 대신 디지털뉴스팀과 뉴 스디자인팀, 편집지원팀 등이 새로 생긴 게 조직 내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림 3> 1993년 동아일보 편집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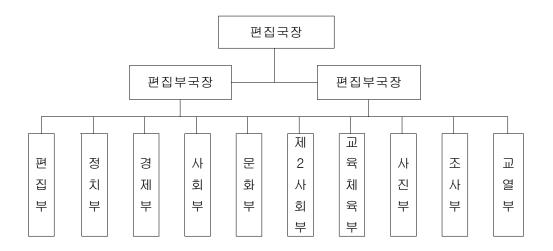
<그림 4> 2006년 동아일보 편집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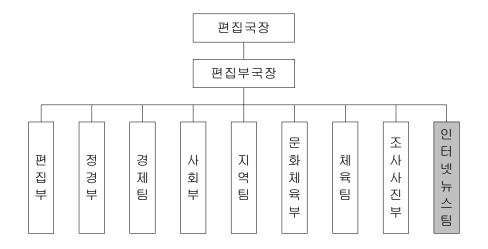
지역신문도 전국지처럼 1990년대 중반까지 CTS가 도입됐다. <그림 5>와 <그림 6>을 비교하면 신문제작 환경이 바뀌면서 지역신문의 편집국 조직도 변모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로 정치부와 경제부가 정경부로, 사진부와 조사부가 사진

조사부로 통합되고, 교열부가 없어지는 대신 인터넷뉴스팀이 신설됐다.

#### <그림 5> 1994년 전남일보 편집국 조직도



#### <그림 6> 2006년 전남일보 편집국 조직도



전국지와 지역신문의 사례에서 보듯이 컴퓨터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를 양대축으로 하는 매체 환경의 변화는 언론사 조직 및 구성원의 위상을 변모시킴으로써 새로운 조직 형태를 낳았다. 신문 제작의 CTS화와 인터넷 취재의 일상화로 언론사

조직 내에서 가장 많은 위상 변화를 가져올 부서들은 편집부, 교열부, 조사부, 사진부라 할 수 있다.

2005년 6월 발행된 '신문과 방송'에 소개된 '집중 점검-편집부, 교열부, 조사부의 현재와 미래'는 뉴스 조직 변화의 흐름과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

"편집국 내 전통 내근 부서라 할 수 있는 편집부, 교열부, 조사부는 1990년대 이후 증면경쟁과 IMF, IT 호황과 불황, 신문제작의 컴퓨터와 DB 구축 등과 같은 대내외 환경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변화를 겪었다. 이들 부서에 대한 변화는 아직도 추진 중이라는 의견과 기능은 필요하고 줄일 만큼 줄였다는 반응으로 엇갈린다"(신문과 방송, 2005년 6월호).

먼저 편집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편집기자협회는 2005년 편집기자 추이를 조사한 뒤 신문사 2곳 중 1곳이 편집부 규모를 줄여 편집기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5년 말에는 조선일보가 조사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자회사인 디지털조선으로 이관했으며, 지난 4월28일에는 영남일보가 교열부와 조사부를 팀으로 개편, 편집부로 배속하는 등 최근 들어 신문 경영 악화와 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편집부와 조사부 등 일부 내근 부서가 급격히 변화를 겪고 있다(한국편집기자협회보 2006년 3월 31일자).

편집부는 기자수 축소와 기자조판제 도입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표 8>에서 보듯이 전국지의 경우 1998년 411명에서 지난해 331명으로 80명이나 줄었다. 2004년 편집기자가 428명으로 최근 15년 동안 가장 많았던 것은 신문사들의 증면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지역신문의 경우 신문수가 비슷했던 1990년(28개사, 405명)과 2005년(26개사, 279명)을 비교해보면 무려 126명이나 줄어들어 편집부 인원 감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조동시, 2005, 117쪽).

<표 8> 편집, 교열, 조사부 기자 수 변화

	편집부	교열부	조사부	편집국 기자 총수		
	기자수/신문수	기자수/신문수	기자수/신문수	기자수/신문수		
		전국지				
1990	286/9	164/9	61/5	1,868/9		
1994	428/9	207/9	54/5	2,544/9		
1998	411/10	87/6	107/7	2,588/10		
1999	392/10	65/8	42/5	2,332/10		
2000	346/8	42/5	59/7	2,109/8		
2004	428/10	54/7	_	2,505/10		
2005	331/9	87/9	_	_		
	지역신문					
1990	405/28	279/28	77/24	2,600/29		
1994	660/44	347/36	88/28	3,885/44		
1998	561/37	167/25	71/24	3,298/38		
1999	423/32	41/13	33/11	2,421/34		
2000	406/29	38/12	34/13	2,239/30		
2004	463/36	53/16	37/13	2,692/38		
2005	279/26	33/11	_	_		

(출처:신문과 방송 2005년 6월호, 변화하는 뉴스생산 시스템, 117쪽에 있는 표를 재구성)

이 같은 인력 감축으로 편집부의 위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강화 될 것이다'와 '축소될 것이다'란 상반된 목소리가 있다.

위상이 강화될 것이란 의견은 기자조판제 실시와 대형 기획보도의 경우 처음부터 편집기자가 참여하는 등 다른 기능 추가로 업무영역이 커지고 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양의 경쟁시대에는 취재기자가 쓰는 기사가 모두 게재됐지만 미디어 경쟁이 양에서 질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여과장치인 편집기자의 강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또 수많은 정보를 정확하고 압축적으로 에디팅해야 하는 언론의기능을 감안할 때 편집기능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조동시, 2005).

반면에 위상이 축소될 것이란 의견은 신문사가 편집 기자를 필요로 하지만 일정수준을 벗어난 고비용의 편집기자는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일부 신문사가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편집기자를 취재부서에 배속하는 등 기능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상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위상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은 지역신문

편집기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국지의 경우 앞으로 주말판 경쟁 등으로 우수 편집기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신문은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지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인력 충원도 요원한 실정이기 때문이다(조동시, 2005).

다음으로 교열부 기자는 10년 전에 비해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전국지는 IMF 전부터 교열부에 대한 축소가 진행돼 1988년 계약직 채용을 시작한 조선일보에 이어 1996년에는 한국일보가, 1997년에는 서울신문이 교열부를 폐지했다. 지역신문은 IMF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었는데, 2004년 한국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38개사 중 16개사 만이 독립된 교열부를 두고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집국 기자 총수 중 교열부 기자 점유율은 전국지와 지역신문 모두 1994년의 8%대에서 2004년 2%로 낮아졌다. 그나마 대부분이 계약직이다. 일부 신문의 경우 교열부가 편집부나 자회사로 재배치돼 통계에서 제외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급감했다고 할 수 있다. 언론계 내부에서는 "신문의 신뢰를 위해서 교열이 필요하다" "한 두 개의 오탈자가 몇 개의 특종과 맞먹는다" "더 이상 줄여서는 안된다"며 교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단순작업의 반복이라는 특성 때문에 과거와 같은 영광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조동시, 2005, 119쪽).

셋째, 신문사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이끈 주역인 조사부는 DB화 진행으로 역풍을 맞았다. 전통적인 신문사 조직에서 조사부는 신문 기사를 비롯한 문서 정보를 정리·보존하고 일선 기자들의 기사 작성에 요구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일종의 지원 기능을 담당했다. 하지만 월드와이드웹을 경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서부터 모든 기자들은 직접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조사부에서 수행했던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일선 기자들에게 이관되면서 그 수가 크게 줄었다.

<표 8>에서 보듯이 전국지는 조사부가 1998년을 정점으로 한 후 2004년에는 편집국 집계에서 타 부서로 분류될 만큼 축소됐다. 지역신문 역시 1994년에는 44개신문 가운데 64%인 28개사에 조사부가 있었으나 2004년에는 30%인 13개사로 줄었다.

전국지의 경우 조사부가 경향신문의 정보자료실, 동아일보의 지식정보센터 등과 같이 편집국내 부서가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었으며 부원의 감원과 계약직 화 또는 자회사 배치가 늘었다. 조사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신문은 기자직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계약직 및 일용직 사원으로 그 수도 1~2명이 고작이다.

향후 조사부의 위상에 대해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는 의견이 있다. DB화 진행으로 스크랩북이 없어짐에 따라 검색시 조사부의 도움이 줄어들었지만 전문 리서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기자는 시사감각과 어학실력을 갖춘 전문 정보검색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다(조동시, 2005). 황용석·권혜진(2002)은 기자 모두가 조사 및 검색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큰 신문사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전문으로 하는 기자나 정보검색사를 두고 이들을 포함하는 팀을 구성해 탐사 취재에 나서는 방식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며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보검색기능은 기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자질이 될 것이며, 사서 역시 지금까지 기자의 고유직무에 속했던 부분을 상당히 흡수하면서 기사 작성과정에서 중요한 동반자의 위상으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코취(Koch, 1991)의 예견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사진부도 인터넷 취재 확산과 신문의 경영 여건에 따라 민감하게 부침을 거듭한 부서이다. 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생생한 사진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이점이 사진부의 위상 변화를 초래했다. 2006년 1월 조선일보는 4명의 사진부 중견기자들이 명예퇴직했다. 이후 조선은 인턴기자로 인력 공백을 메웠는데 이를 두고사진기자들 사이에는 조선일보가 올해 안에 사진부를 아웃소싱할 것이란 의견을내놓고 있다. 이 같은 위기감 때문에 급기야 국회 사진기자단은 인턴 사진기자의기자실 출입을 금지시켰다. 더욱이 다른 언론사에서도 조선의 인턴 사진기자 채용을 벤치마킹할 움직임이어서 사진기자들의 압박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한국기자협회보, 2006년 3월 1일자).

언론사 내부에서도 사진부를 취재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사진기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지역신문 사진부도 힘겹기는 마찬가 지이다. 인력이 부족해 아르바이트 인력을 활용하거나 통신사 사진 및 행정기관 기업체 홍보사진으로 면을 메우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취재 환경의 변화는 조직 내 부서의 위상 변화를 가져 왔지만 이러한 변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성원 중 하나가 지역신문 지역 기자들 이다. 이들은 대부분 제2사회부나 사회2부, 지역뉴스부, 지방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담당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취재 보도 영역이 광역화되어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만해도 지역신문 지역기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사건사고를 챙기고 원고지에 기사를 작성해 본사에 팩시밀리로 송고했다. 본사에서는 지방 주재기자들이 보내온 기사를 수정하고 추가로 취재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인터넷 취재가 활성화되면서 이들에게 더 이상 기사를 보내라고 독촉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재와 기사작성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기자도 있지만 기사가 아닌 정보보고 수준의 페이퍼를 올리거나 광고 판매에 신경을 쓰는 기자가더 많은 실정이다.

더군다나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하루에도 수 십 건에 달하는 지역관련기사를 회원 지방사에게 서비스하면서 지역신문 지역기자들의 위상은 날로 하락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신문은 통신사가 송고한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면서 통신사크레디트를 달지 않고 해당 지역 기자의 이름을 달아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 한마디로 인터넷 취재 활성화와 네트워크 기술이 지역신문 주재기자의 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 3 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제 1 절 연구 문제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은 기자들의 아이디어 구상, 취재 과정, 기사작성 등 거의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인터넷이 기자들의 노동여건과 위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확인할 수 있다. 이런 변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인터넷은 기존 미디어와차별화된 기술적 특성으로 기존 오프라인 저널리즘의 영역을 하나씩 허물면서 새로운 매스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가 언론인의 뉴스 생산 방식과 노동,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취재 영역은 같으면서 조직 형태는 다른 중앙사 지역기자와 지방사 기자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 문제 1: 인터넷 취재로 인한 기자들의 취재 시스템 변화는 전국지 지역기자 와 지역신문 기자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2: 인터넷 취재가 노동 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 신문 기자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문제 3: 인터넷 취재가 신문사 구성원의 조직 및 위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간에 차이가 있는가?

## 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작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면접을 택하였다. 심층면접은 수용자나 소비자의 태도와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동원되는 연구 전략으로 대상자들의 자발적 진술을 통해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들의 인지와 행위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가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간에 인터넷 취재로 인한 여러가지 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므로, 심층면접 대상자로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 9개 전국지 지역기자 11명과 광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 남도일보, 광남일보 등 5개 지역신문 기자 18명을 선정하였다. 전국지 지역기자의 경우 광주에서활동하고 있는 취재기자 10명과 사진기자 1명이 대상자였고, 이들은 모두 사회부나 전국부에 소속돼 있다. 지역신문의 경우 언론사 내 지위에 따라 인터넷 취재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내 지위를 고려하여 편집부국장과 부장, 차장,평기자 등 16명과 지역기자 2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터넷 취재는 부서 간 상이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역신문의 경우 경제부, 사회부, 사회2부(지역뉴스부), 문화부, 체육부, 편집부, 조사부 등 편집국 내 주요 부서를 고루 망라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분포는 아래 〈표 9〉과 같다.

심층면접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11월10일까지 연구자가 이메일로 인터뷰 자료를 미리 대상자에게 보낸 뒤 답변지를 보내온 기자들을 직접 만나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기자들의 출입처에서 이루어졌으며 만나지 못한 일부 기자들은 전화로 인터뷰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전화와 이메일로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인터뷰 시간은 30분에서 40분이었다. 인터뷰 항목은 온라인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 논문과 인터넷 취재 실무서 등을 참조해 구성했다.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

문 기자, 지역신문의 지역기자들의 인터넷 이용 정도와 장단점, 인터넷 취재가 취재 시스템과 노동여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취재로 인한 지역 언론계 전망 등을 알아보기 위해 37개 공통 질문안을 만들어 개방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지역신문의 본사 기자와 지역 기자와의 취재시스템 변화 연구를 위해 추가 질문안을 따로 만들었다<부록 참조>.

#### <표 9> 심충면접 대상자의 분포

면접대상자		부서	경력(년)	나이(세)	직위	
		A	사회부	18	42	차장
		В	사회부	15	43	기자
		С	사회부	19	46	차장
		D	사회부	13	39	기자
전국지		Е	사회부	16	45	차장
지역기자		F	사회부	12	38	기자
(11명)		G	사진부	12	39	기자
(== 0)		Н	사회2부	15	42	차장
		I	전국부	17	44	차장
		J	전국부	16	44	차장
		K	전국부	8	32	기자
	본사 기자	A	편집부	13	41	차장
		В	사회부	13	41	기자
		С	사회부	12	36	기자
		D	사회부	16	43	부장
		Е	스포츠레저부	16	41	부장
		F	사진부	15	42	차장
		G	편집부	19	45	부장
		Н	사회부	11	39	차장
지역신문		I	사회2부	15	41	차장
(18명)		J	정보조사부	19	48	부국장
		K	사회부	12	39	기자
		L	체육레저부	11	38	기자
		M	사회부	2	30	기자
		N	경제부	4	31	기자
		0	문화부	14	39	차장
		Р	사회부	7	33	차장
	지역 기자	Q	사회2부	9	43	차장
		R	사회2부	20	58	부장

## 제 4 장 연구 결과

### 제 1 절 인터넷 취재와 뉴스 생산 활동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가 기자들의 뉴스 생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심층 면접 결과 인터넷 취재가 취재시간 감소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고 출입처 중심의 취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재 영역의 구분이 사라지고 취재원과의 관계도 과거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1. 인터넷 취재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

심층면접 결과 전국지 지역기자들과 지역신문 기자들은 정보검색이나 이메일, 사내 통신망 등 인터넷을 하루 평균 적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하루 인터넷 이용 시간의 절반을 뉴스 사이트 검색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국지 지역기자나 지역신문 기자 모두 취재나 업무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뉴스였고 웹 브라우저(익스플로러 등) 시작 화면은 포털 사이트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역신문 기자들은 포털뉴스 다음으로 한국

언론재단의 뉴스검색사이트인 카인즈(KINDS)를,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지역신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문 기자들은 "포털뉴스가 지역신문 기사를 서비스하지 않기 때문에 카인즈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했으며,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지역 뉴스와 과거 기사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지역신문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들의 인터넷 이용 방식이 업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토론방,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하지 않지만 일부 기자들은 최신 정보나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 또는 북핵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등 전국적인 이슈가 있을 때 네티즌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었다.

즐겨찾기 항목은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50여 개에 달했으며 3분의 2 정도가 업무와 관련된 사이트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인터넷 취재가 다양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고 사진이나 보도자료를 손쉽게 받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줘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시군단위에서 벌어지는 행사를 전화로 취재하고 사진을 전송받기가 매우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사진을 받아 본사로 전송하는 게 일상화됐다. 취재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미리 인터넷 메일로 받아 읽어보고 메일을 통해질문을 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전국지 H).

장소와 정보량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접근성도 뛰어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남보다 노력하면 좋은 정보와 자료를 찾아내 차별화된 기사를 쓸 수 있다(전국지 J).

인터넷 취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진 탓인지 취재 현장에서 인터넷이 안되면 불 안감을 느낄 정도다(전국지 A). 지역신문 기자들도 인터넷을 저비용 고효율의 취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넷 취재의 장점은 무엇보다 정보검색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과거 타 기자가 취재했던 기사내용을 검색해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서 심도 있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사를 취재할 경우에는 인터넷이 많은 도움이 된다. 몇 개월전 지역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이 토양 오염을 유발시켜 사회문제가 됐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었고, 또 오염물질이 얼마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파악하고 보도해 기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지역신문 I).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인터넷에서 충분하게 선택 복사해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사건의 기사 패턴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참조할 수 있다. 뉴스 그룹이나 대화방 등을 통해 여론을 탐지하고 출입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살필 수 있다. 과거에는 출입처 민원실 민원대장을 뒤졌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부분의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발품을 많이 팔지않아도 된다(지역신문 H)

기존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는데 조사부를 거친다든가 스크랩을 참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지금은 필요한 아이콘을 자체적으로 쉽게 보관할 수 있고 다양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접할 수 있다(지역신문 G).

기자들의 이 같은 인식은 이메일로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자료를 구하고, 뉴스그룹, 게시판 등을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수렴도 가능하다는 전망(Frost, 2002; Garrison, 1995; Pavlik, 2001)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들은 인터넷 취재의 장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터넷 취재가 자료에 대한 신뢰도 검증이 쉽지 않고 현장 취재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취재의 보조 수단이 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넷이 취재기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내용 및 의견이 많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2년 전 모 기관장 비리와 관련 익명의 이메일 제보를 받았다. 제보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큰 기사거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취재 해보니 과장되고 일부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정보의 신뢰도와 품질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에 전적으로 매달리기 보다는 취재의 보조수단으로 봐야 한다(전국지 F).

취재 아이템을 찾고 관련 기사 검색을 통해 기사작성 방향을 정하는 등 인터넷 취재의 장점이 많지만 한계도 있다. 취재 대상을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나는 기사를 작성할 수 없다. 기자는 취재원과 만나 교감을 통해 기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장 밀착도가 떨어지다 보니 내면의 이야기를 담아내는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정보를 찾고 조합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기자가 게을러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지역신문 O).

인터넷의 정보는 무책임성, 특정 목적을 겨냥한 여론몰이 조작가능성 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간과하지 않고 사실을 확인하는 기본원칙을 지키는 일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전국지 J).

인터넷은 취재의 많은 도구중 하나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취재를 하고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한다(지역신문 L).

데이비스(Davis, 1999)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스의 신뢰도 문제가 오늘날 언론 인들이 처한 가장 큰 딜레마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기자들은 인터넷 활용 취재가 기자들의 취재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데이비스의 지적처럼 신뢰도 검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취재의 전문성 여부에 대해서는 기자 개개인의 인식 차가 컸다. 인터뷰 대상자 29명 가운데 3분의 2가 인터넷 취재는 더 이상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고 답했다. 한마디로 인터넷 취재가 기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됐

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정보검색이나 자료 분류 등 간단한 기능만 숙지하면 취재에 활용할 수 있다(전국지 E).

인터넷 취재는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전문적인 기술(skil)을 요구하지 않는다(지역신문 D).

그러나 인터넷 취재가 전문적인 분야이며 기자만의 고유 업무라는 상반된 견해도 있었다.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취사선택하고 기사가치를 정해서 좋은 상품으로 엮어내려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기자에겐 이런 전문가적인 자질이 필요하다(전국지 J).

정보 검색 능력과 조합 능력만 있으면 기본 수준의 기사는 작성할 수 있다. 인터넷이 친숙한 젊은 기자들은 짧은 시간에 기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심층적인 기사를 생산하지 못한다. 깊이 있는 기사를 작성하려면 인터넷에서 가치 있는 고급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지역신문 O).

인터넷 검색 수준과 관련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들은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검색 수준은 중간이상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요컨대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모두 인터넷이 효율적인 취재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는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인터넷 취재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기자에 따라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 2. 출입처 중심 취재의 약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은 뉴스의 전달과 소비 방식, 수용자와의 관계, 뉴스 스토리의 구성방식, 그리고 전달속도 등 전반적인 과정을 변화시켜왔다(황용석, 2005). 이런 점에서 인터넷 취재로 기자들의 취재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고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취재형태인 출입처 취재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거의 모든 출입처에서 보도자료 등 각종 자료들을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기자들의 출입처 방문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 같은 변화는 전국지 지역기자보다 지역신문 기자 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출입처가 적게는 2곳에서 많게는 10곳이 넘었다. 한 사람이 많은 출입처를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 주로 한 곳에 머물면서 취재를 하고 있다.

전남도청, 전남경찰청, 법원, 검찰, 대학 등을 출입하는데 주로 전남경찰청 기자실에 하루 8시간 정도 상주한다. 인원이 적은 탓에 기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말뚝기자'라고 부른다(전국지 H).

전국지 기자들이 한 곳에 머물면서 취재하는 이 같은 방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굳이 변화를 꼽으라면 상주 출입처를 제외한 다른 출입처를 거의 가지 않는 '출입처 집중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필요한 자료는 이메일로 받고 해당 기관이나 단체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전국지 I).

지역신문 기자들의 출입처는 한 사람당 1~6개로 전국지 지역기자보다 적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들의 출입처 방문 횟수가 크게 줄고 가더라도 머무는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출입처 취재 방식이 주로 한 곳에 머물면서 취재하는 전국지

지역기자들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검색 같은 새로운 취재방식이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어 기자들의 배타적 취재공간인 출입처 취재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교육청에 머물면서 취재한다. 1주일에 한번 교육판과 대학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출입처에 갈 여력이 없다. 출입처에 가지 않아도 자료를 보내주고 필요하면 전화로 취재하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지역신문 B).

출입처 방문 횟수가 줄고 출입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올라온 내용을 확인하는 취재가 늘었다. 기자들이 출입처에 자주 나가지 않다보니 기자간담회도 줄었다(지역신문 L).

지역신문 기자들은 출입처 취재 방식의 변화가 인터넷의 영향도 있지만 인력 부족도 한 원인라고 분석했다. 각 신문사 당 편집국 인원이 30~40명에 달했던 10년 전만해도 기자들이 맡은 출입처는 1~2개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그 숫자가 절반 정도 줄어 출입처 수가 그 만큼 많아졌다는 것이다.

올 11월 초에 편집국 인사가 있었는데 출입처를 맡고 있는 기자가 15명밖에 되지 않았다. 지역의 관공서, 기업체, 대학, 시민사회단체, 정당, 병원 등 출입처가 줄잡아 100개가 넘는데 15명이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지역신문 C).

부원들이 맡은 출입처 가운데 형식상 이름만 걸어 놓은 출입처가 있다. 그런 출입처는 기사 발굴보다는 민원이 있을 때 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지역신문 D).

지역신문의 열악한 취재 여건이 인원 감축을 초래하고 부족한 인원 때문에 출입 처 취재방식이 변했으며 이런 취재 환경은 적은 인원으로도 취재가 가능한 인터넷 의 기술적 특성에 기인한다는 알 수 있다.

#### 3. 고유 취재 영역의 붕괴

임영호(1998)는 온라인 저널리즘에서는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 대신에 정치, 경제, 교육 등 주제에 따라 취재영역이 재편성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재구역도 이전처럼 물리적 이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영호의 지적처럼인터넷을 통해 본사(편집국)가 기자들의 출입처나 또는 커버하고 있는 지역의 뉴스를 먼저 알고 취재지시를 내리거나 인터넷으로 받은 제보를 토스하는 등 취재영역이나 구분이 사라지는 사례가 전국지 지역기자들에게 나타났다.

올해 초 학교폭력으로 중학생이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있었는데 포털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루자 본사에서 기사를 작성하라고 했다. 인터넷의 힘을 실감하는 사례였다(전국지 B).

네티즌이나 독자들이 본사 사이트나 데스크 메일을 통해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한 달에 한 건 정도 이런 제보가 지역기자에게 전달된다(전국지 C).

지역의 사건 사고나 굵직한 행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미리 알려지기 때문에 본사에서 미리 알고 기사 방향을 미리 정해서 취재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전국지 D).

담당 지역이나 출입처 외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자의 출입처 뉴스를 인터넷으로 취재하는 일도 일상화되고 있다.

농림부나 해양수산부, 노동부 등은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지만 지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련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 손쉽게 취재원 연결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농림부 수입 쌀 통계 현황이나 수입쌀이 국산 쌀로 둔갑한 사례 등은 홈페이지에 띄워놓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다(전국지 H)

지역의 문제를 기사화할 때 본사에서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체크해 기사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주문을 한다. 이 때 다른 지역의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전국지 K).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역이나 분야가 넓어졌다. 경제부의 경우 유통관련기사는 예전 같으면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위주였지만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개인 블로그 등을 자주 이용하고 자료를 얻는다. 휴가를 가거나 다른 기자의 업무를 대신 맡을 때도 이메일로 자료 받고 전화하면 되니까 별 어려움이 없다(지역신문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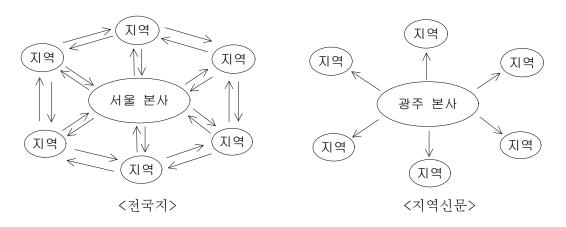
인터넷으로 취재영역이 무너지면서 역으로 지역에 기자가 있는데도 서울 본사에서 기자를 파견해 지역의 이슈나 화제 거리를 취재해 보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나 제보 등을 통해 서울 본사 기자가 지방에 내려와 취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환경이나 교육 관련 취재가 많은 것 같다(전국지 B).

대부분의 지역신문 기자들도 지역에 기자가 있지만 인터넷이나 전화로 직접 취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이 있을 때 해당 관청이나 기관에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지역별로 인터넷 신문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 최신 자료와 기사를 확인하고 있다(지역신문 H).

#### <그림 7> 취재영역 파괴 개념도



<그림 7>은 인터넷으로 인한 취재 영역의 파괴를 설명하고 있는데, 전국지의 경우 본사와 지역간, 지역과 지역간에 취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신문도 본사에서 지역을 취재하고 있지만 전국지처럼 취재 영역의 파괴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취재방식에 대해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지역기자 간에 시각차가 컸다.

본사 및 지역기자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분야의 식견이 높은 기자가 취재하는 게 당연하다(전국지 B).

지역기자에게 익숙해서 뉴스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안도 본사 차원에서는 새로운 뉴스가 될 수 있다(전국지 H)

그러나 지역신문 지역기자들은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본인의 경우는 거의 없지만 타 신문사의 경우는 지역기자의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본사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취재를 하고 있다. 이게 지역기자의 현실이다(지역신문 Q).

본사에서 연락을 하지 않고 출입처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해 기사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본사에 항의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다(지역신문 R).

인터넷으로 인한 취재 영역 파괴 현상에 대해 전국지 지역기자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지역신문 지역기자들은 위상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취재원 의존도 및 관계 변화

시갈(Sigal, 1987)은 뉴스가 현실세계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혹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누군가에 의해 말하게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뉴스 보도 형식은 대부분 정보원으로 하여금 그 사안에 관해 말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한다. 심충면접 결과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로 기자들과 취재원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출입처 방문 횟수가 줄면서 취재원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사무적으로 변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취재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가 인터넷으로 배포되면서 취재원이나 정보원과의 관계가 다소 삭막해진 게사실이다. 취재원과의 스킨십도 줄어 고급정보를 캐내는데 어려움이 많다. 예전에는 여러 사람을 정보원으로 관리했는데 요즘에는 꼭 필요한 몇 사람만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다(전국지 A).

취재원이나 정보원이 줄었지만 오히려 더 잘됐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여러 사람을 관리하기 쉽지 않았는데 몇 사람만 집중 관리하면 되고 그들에게 나오는 정보를 더 신뢰할 수 있다(전국지 B).

지역신문 기자들도 취재원과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다.

인터넷 취재로 공보실(홍보실) 직원들이 기자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신문에 몇 줄이라도 나오게 하려고 부탁하기 바빴지만 이제는 '보도하려면 하고 말라 면 말라'는 식이다(지역신문 R)

주로 전화상으로 취재를 하다 보니 '전화 취재원'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들은 인사가나서 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계를 맺고 관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지역신문 I).

인터넷 취재로 인한 취재원과의 관계에 대해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취재원과 다소 멀어졌지만 고급정보를 빼내기 위해 여전히 소수의 취재원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지역신문 기자들은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자들은 취재원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역할은 여전 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사업(J프로젝트)이나 광주시와 문화관광부가 벌이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사업 등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그 규모나 건설 내용, 그동안 추진상황 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걸림돌이 뭐고, 향후 추진 방향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으며,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등 미묘한 사안은 취재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취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지역신문 J).

이는 인터넷이 취재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전통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취재원을 통한 사실 확인은 여전히 취재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취재시간 감소

인터넷 취재가 취재시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자들은 인터넷 취재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쉽게 다운로드 받고, 취재할 때 정보를 신속히 검색하고, 기사 작성 전에 그간 보도된 내용을 보고 기사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등 장점이 많아 과거에 비해 취재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취재 장소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 통화로 이것저것을 묻는 것 보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그동안 어떤 기사와 사진이 게재됐는지 알 수 있고 블로그나 카페에서 그동안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을 건지는 뜻밖의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전국지 G).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 대상자의 이력이나 학력, 고향 등을 미리 파악하면 취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가면 더욱 손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인터뷰 대상자들이 호감을 느끼는 것 같다(전국지 H).

과거에는 통계를 알아보려면 전화통을 10분이나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조사부에서 자료를 찾아봐야 했다. 지금은 정보검색 능력이 뛰어난 기자라면 무슨 통계라도 인터 넷에서 1분이면 찾을 수 있다(지역신문 B).

관공서나 기관사회단체의 정보공개로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른 시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존 기사를 검색하거나 관련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취합한 후 관련기관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이런 방식의 취재가 일상화되면서 과거보다 취재시간이 크게 줄었다(지역신문 H).

그러나 일부 기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취재시간이 줄지는 않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기사 작성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취재시간이 많이 줄었다고는 할 수 없다. 검색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하기 때문이다. 기사 작성을 하는데도 예전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전국지 C).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인터넷 취재가 시간상 잇점이 있지만 문제는 부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원에게 전화를 걸 거나 다른 자료를 찾아보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에서 취재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힘들다(전국지 F).

인터넷이 취재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는 대부분의 기자들의 견해와 달리 정보 확인 때문에 시간이 줄지 않았다는 일부 기자들의 인식은 인터넷이 모든 기자에게 취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제 2 절 인터넷 취재와 노동 여건

인터넷 상용화는 매체산업 구조에서부터 종사자들의 작업 양식, 수용자들의 소비 양식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가져왔다(임영호, 1998, 6쪽). 그 가운데 언론종사자들 특히 뉴스를 취재하고 기사화하는 기자들의 노동 여건 변화는 괄목하다고 할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사 중 하나는 과연 인터넷 취재가 기자들의 노동시간이나노동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심층면접 결과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들은 노동여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 1. 노동 시간의 차이

노동시간은 신문사의 마감시간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마감시간이 긴 전국지 지역기자가 지역신문 기자에 비해 노동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의 경우 대

체로 오후 9시 이전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마감시간 이후 취재 업무에서 손을 떼지만 전국지의 경우 마감시간이 밤 12시여서 지역기자들은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본사에서 취재지시가 있으면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이 같은 취재시스템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김사승(2003, 69쪽)의 지적처럼 인터넷 취재는취재시간 연장이라는 형태로 신문뉴스의 시간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하루 4, 5차례의 신문 판갈이 횟수에는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지 기자들은 마감시간에 맞춰서 산다. 오후 3시까지 지방판을 마감하고 나면 오후 6시까지 본면용 기사를 송고해야 한다. 이후 밤 12시까지 마감이 3차례나 더 있다. 전국판 기사의 경우 현재진행형일 경우 마감시간에 맞춰 기사를 계속 고쳐 써야 한다 (전국지 F).

전국지 지역기자들의 노동시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신문사 별로 마감 시간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노동시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노동시간과 근무시간은 구별돼야 한다고 본다. 기자가 근무시간 내내 노동을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전국지 I)

일부 지역신문은 전국지, 스포츠지와 인쇄 계약을 맺어 현지 인쇄를 대행하면서 오후 8시 이전에 마감을 한다. 기자들은 빠른 마감시간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측면 이 있으나 그날의 뉴스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전국지 인쇄 때문에 늦어도 오후 8시까지 마감을 해야 한다. 본지 인쇄가 끝나면 바로 전국지 인쇄를 들어가기 때문에 마감시간이 빠를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마감시간 이후에 꼭 들어가야 할 기사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경영여건을 감안하면 전국지 인쇄가 필요하지만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는 개선돼야 할 일이다(지역신문 L).

마감시간이 빨라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은 반길 일이지만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밤에 일어난 사건 사고나 대형 뉴스 등을 신문에 게재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지역신문 K).

요컨대 인터넷 취재가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연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간의 노동 패턴은 신문 마감시간이나 인쇄 여건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노동 강도의 강화

전국지 지역기자들이 지역신문 기자들에 비해 노동시간이 많지만 노동 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의 전국지 지역기자의 일과와 〈표 11〉의 지역신문 기자의 일과를 비교하면 전국지 지역기자가 취재와 관련한 노동시간은 지역신문 기자보다 4시간 정도 많았다. 그러나 노동 강도는 지역신문 기자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 스스로 노동 강도를 측정12〉하도록 한 결과 총점이 전국지 지역기자는 38점, 지역신문 기자는 52점으로 나타나 노동 강도는 지역신문 기자가더 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up>12)</sup> 괄호안의 숫자가 스스로 측정한 노동강도이며, 가장 낮은 것이 1, 가장 높은 것이 5이다.

## <표 10> 전국지 F기자 하루 일과(2006년 11월7일)

07:00	기상, TV 뉴스 시청(1)
07:40	출근준비(1)
08:00	전남지방경찰청 기자실로 출근-자가용(1)
08:30	전국지, 지역신문 읽고 빠진 기사 있는지 체크(2)
09:10	아침보고, 사내통신망 접속, 이메일 체크(3)
09:30	지방판 기사 2건(전남 섬관광, 농수산물가격 폭락) 취재 및 기사작성(4)
12:00	출입처 직원들과 점심식사(1)
13:30	오후보고 및 이메일 검색(3)
14:00	휴식(1)
14:20	사건사고 및 화제(발가락 절단사건, 전교조 교사 설문) 취재 및 기사작성(4)
16:40	다음날 지방판 기사 취재 및 인터넷 검색(3)
17:30	신년 및 송년기획아이디어 송고(4)
18:20	저녁식사 및 술자리(1)
21:00	본사에서 연합뉴스가 송고한 절도용의자 탈주사건 취재 지시(2)
21:40	절도용의자 탈주사건 기사 송고(3)
22:30	귀가(1)
22:50	연합뉴스, 포털뉴스 검색(2)
23:30	취침(1)

## <표 11> 지역신문 B기자 하루 일과(2006년 11월2일)

07:30	기상(1)
08:00	인터넷 뉴스사이트 '신문가게' 검색(2)
08:30	광주시교육청으로 출근-자가용(1)
09:00	전국지, 지역신문 읽고 빠진 기사 있는지 체크(3)
09:30	연합뉴스, 뉴시스 체크, 취재 집배신시스템 접속(3)
10:00	각 실과 돌아다니며 취재(4)
11:30	초등교원 감축 관련 광주교육대 전화로 취재(4)
12:00	출입처 직원들과 점심(1)
13:00	집배신 시스템에 접속해 당일 쓸 기사 보고(3)
13:30	휴식(1)
14:00	광주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취재(4)
14:30	광주교육대 전화로 추가 취재(4)
15:30	귀사(1)
16:00	광주교대생 초등교원 감축 반발 기사를 사회면 톱으로 작성(4)
17:00	납품비리 교사 복직 등 단신 기사 2건 작성(3)
17:30	연합뉴스, 뉴시스 검색(2)
18:00	다음날 취재거리 챙김(3)
18:30	노조에서 휴식(1)
19:00	사회1, 2면 교열(4)
19:30	저녁 식사 및 술자리, 2차 호프집(1)
23:00	귀가(1)
23:30	취침(1)

한편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인터넷으로 인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관련 정보를 찾아내는 등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노동 강도가 강화됐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 관련 뉴스까지 종합해 기사를 작성하라는 주문도 꽤 늘었다. 이메일을 수 시로 검색하는 일도 번거롭기 짝이 없다(전국지 A).

본지 외에 별도로 인터넷 기사를 작성하거나 각종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지역 뉴스에 대해 밤에 데스크가 기사 가치 판단을 요구할 때가 가장 피곤하다(전국지 C).

뉴스 보도 소스가 지역신문 등으로 다변화됐고 포털에 지역 관련 뉴스가 실시간으로 뜨면서 이를 확인하는 일도 노동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다(전국지 H).

인터넷으로 인해 하루에 접하는 정보의 양이 크게 늘면서 이를 분류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골라내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졌다 (전국지 J).

반면에 지역신문 기자들은 노동 강도가 높아진 것이 인터넷을 통한 기본 취재 업무도 있지만 편집국 인력 부족으로 편집, 교열 업무까지 떠안게 된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청, 법원, 검찰청을 취재한 뒤 오후 4시에 회사에 들어가면 2시간 정도 기사를 작성하고 후배 기자들의 기사를 손질한다. 오후 6시부터 사회부에서 넘어온 기사의 제목을 뽑고 편집을 한 뒤 조판에 넘어가기 전에 대장을 보면서 오탈자가 없는지 확인한다. 오후 8시에 모든 업무가 끝나면 몸은 파김치가 된다. 모든 부서의 부장과 부원들이 취재와 편집, 교열을 보는 1인 3역 체제가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지역신문 P).

편집기자지만 취재기자가 부족해 편집과 취재를 병행하고 있다. 취재를 하다가도 편집시간이 되면 서둘러 들어와야 하고 편집이 끝나면 기사거리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편집만 할 때 보다 훨씬 힘들어졌다. 현재 10개 지방신문사 가운데 편집부가 있는 신문사는 5곳 뿐이고 본지의 경우 편집기자가 부장을 포함해 4명밖에 안돼 한 명이 하루 4판씩을 맡고 있다(지역신문 A).

본지의 경우 2005년 말 사진부가 스포츠레저부에 통합되면서 사진기자 3명 가운데 1명은 취재 파트로 나가고 부장인 나를 포함한 2명은 스포츠레저부에서 취재와 사진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행정기관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사진이나 인물 동정 사진 등은 홍보실을 통해 제공받는다. 10년 전만하더라도 지방신문사마다 사진기자가 7~8명이 있었으나 지금은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으로 줄었고 IMF 이후 사진기자 채용이 거의 없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지역신문 E).

편집과 교열은 과거처럼 독립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취재기자들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특별한 책임 의식 없이 편집과 교열을 하기 때문에 오탈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 N).

사진부는 인터넷 취재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사진 취재 업무는 예전에 비해 훨씬 수월해지고 간편해지는 등 이점이 많지만 이런 편의성이 인원감축으로 이어져 결국 노동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지역신문 F).

'1인 3역'의 노동여건이 만들어진 것은 취재기자가 출입처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메일로 보내온 보도자료를 보고 기사를 쓸 수 있고, 현장 취재를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취재 편의성 때문이다"(지역신문 I).

지역신문 기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인력부족이 기자들의 노동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터넷은 간접적인 요인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취재 뿐 아니라 편집과 교열까지 맡으면서 노동 강도가 늘어난 것은 인터넷 취재의 편의성 때문이라는 지역신문 기자 I의 지적은 인터넷이 기자들의 노동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국지 지역기자 역시 인터넷이 취재의 편의성을 가져다주었지만 인터넷 자체가

또 하나의 취재 대상으로서 업무량을 증가시킴으로서 노동강도를 강화시킨다고 인 식하고 있다.

#### 3. 부서별 노동 여건 및 전망

인터넷이 노동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부서에서 두드러질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간에 차이가 있었다<표 12 참조>. 전국지 지역기자 대부분은 지역에 근무하기 때문에 본사의 부서별 노동여건에 대해 자세히알지 못하지만 인터넷 취재에 의존도가 높은 국제부와 스포츠레저부, 사회부, 인터넷뉴스부 등이 노동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부의 경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새로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취재에 매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전국지 C).

해외에 진출한 선수들의 활약상을 취재 보도하기 위해서, 세계의 여행 정보나 취재원 전화번호 등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취재가 필수적일 것이다(전국지 G).

인터넷 게시판이나 각종 사이트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해야하는 사회부와 최신 뉴스를 내보내고 기사를 업데이트하는 인터넷뉴스부를 노동 강도가 높을 것이다(전국지 E, F).

반면에 대부분의 지역신문 기자들은 편집부, 사회부, 사진부, 지역뉴스부 등이 노동 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터넷 취재 의존도보다는 인력 부족 현상이 노동 강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역신문 경영난으로 인원 감축의 직격탄을 맞은 부서가 편집부다. 1989년 신문 창간 당시 20명이었던 편집기자가 지금은 4명에 불과하다. 거기에다 기자가 직접 판을 짜는 조판제의 도입으로 노동 강도가 10년 전 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지역신문 G).

편집부는 기자들의 기피부서 1위인데다 인원이 적어 하루에 많게는 4판까지 편집을 해야 하는 등 업무 피로도가 높다(지역신문 A, K).

사회부 사건담당기자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도 지면 기여도는 여전히 높고 교열 업무까지 떠안아 노동여건이 극히 열악하다(지역신문 C, P).

사진부는 기자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일거리는 인원이 줄어든 만큼 늘어났다(지역신문 F).

지역뉴스부는 각 지역에 상주하는 지역기자들의 취재 및 기자 작성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노동 강도는 계속 강화될 것이다. 지역신문 특성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의 기사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도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다(지역신문 I).

#### <표 12> 향후 노동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

#### 전국지

국제부
스포츠레저부
사회부
인터넷뉴스부

#### 지역시두

편집부
사회부
사진부
지역뉴스부

인터넷이 향후 기자들의 노동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들은 대체로 노동 강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들은 노동 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언론사간 경쟁 심화, 인력감축 등을 들었다.

뉴 미디어는 컨버전(융합), 다시 말해 원소스 멀티유즈의 환경이 될 것이다. 신문사들은 초를 다투는 경쟁을 벌일 것이고 기자들도 그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전국지 A).

신문사가 인터넷의 발달과 포털의 영향을 받아 온오프 통합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기자들은 신속성과 심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 다(전국지 H).

인터넷 시대에는 기자에게 다기능이 요구되고 이게 가능해지면 적은 인원으로도 신문을 만들 수 있다. 이는 곧 특정분야에서 자기만의 전문영역을 구축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강박관념을 갖도록 해 결국 정신적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전국지 J).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잘 찾아내는 기자가 일 잘하는 기자, 글 쓰는 기자가 될 것이다. 이를 테면 정보검색 능력 차이에서 우열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실력을 갖추려면 당연히 노동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지역신문 A).

인터넷 특히 포털 사이트는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전파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신문은 인터넷에 비해 정보의 양과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포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많을 밖에 없다. 이런 게 노동강도를 높이는 요인 이 될 것이다(지역신문 B).

요컨대 미디어 융합으로 인한 경쟁부문의 확대, 신속성과 심충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의무감, 전문영역 개척 등 다기능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향후 기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킬 것 이라는 점에 대해 공통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 제 3 절 인터넷 취재와 조직 및 위상

앞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뉴스매체의 성격과 뉴스개념은 물론 뉴스조직에서 노사관계의 틀까지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온라인 저널리즘은 뉴스 조직 내에서 새로운 숙련도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기존 직무구조도 바꾸는 등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임영호, 1998, 32쪽). 심층면접 결과 인터넷이 전국지와 지역신문의 뉴스 생산 조직의 틀

을 바꾸고 구성원들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지 지역기 자와 지역신문 지역기자는 본사가 해당 지역에 파견한다는 점에서 근무 형태가 같 지만 스스로 느끼는 위상 변화에 대해 큰 차이를 보였다.

#### 1. 편집국 조직의 변화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인터넷 취재로 인한 편집국 조직 내 변화로 인터넷 뉴스 전 담 부서 신설, 교열부 및 조사부 등 내근 부서 구조조정 등을 들었다.

인터넷 뉴스 전담 부서가 편집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신설됐다. 온라인 부서가 생기 면서 편집국 기자를 온라인 부서로 이동 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전국지 E).

편집부가 기존의 단일 부서가 해체돼 국내1뉴스(사회), 국내2뉴스(정치), 경제, 지역 등 각 부서별로 배치됐다. 기존의 부장(데스크) 대신 에디터제가 도입되면서 편집부 기자와 기사 출고 부서의 시각 차이를 좁히자는 취지의 시도로 이해하고 있다(전국지 H).

인터넷 취재가 활발해지면서 내근부서 가운데 부침이 가장 심한 부서는 조사부다. 본사의 경우 조사부가 인원이 줄면서 조사연구팀으로 개편됐다. 1993년 23명이던 조사부 인원은 지금 9명에 불과하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약적 사원이다. 교열부도 어문연구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인원도 1993년 29명이었던 기자가 지금은 16명으로 줄었다. 그나마 기자는 팀장을 포함해 3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적 사원이다(전국지 G).

내근부서 인원이 줄어든 것은 모든 기자가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문 제작이 전산화되면서 조사부, 교열부 역할이 축소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전국지 I).

지역신문 기자들도 인터넷 취재로 취재부서 통폐합, 내근부서 인원 감축, 인터넷

관련 부서 신설 등과 같은 조직의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부와 사진부는 인원감축, 교열부는 폐지, 조사부는 유명무실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새로 생긴 부서는 여론매체부가 유일하다(지역신문 I).

2006년 11월 편집국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치부와 경제부를 합쳐서 정경부로, 문화부와 체육부를 통합해 문화체육부로 개편했다. 기자들이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취재방식 또한 간편해져 한 사람이 서너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편집국 부서가 통폐합됐다(지역신문 A).

중앙 지역기자들은 인터넷 취재 및 뉴스의 비중이 커지면서 인력 재배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터넷 관련 부서의 인원이 대폭 늘고 역할도 커질 것이다. 반면 내근부서는 통합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다(전국지 C).

취재부서는 온라인 뉴스 독자를 위해 신속한 뉴스를 생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기존의 출입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는 취재부서 기자들 중 통신 뉴스 등을 확인하는 기자와 새로운 시각의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로 나눠질 수 있다(전국지 H).

그러나 지역신문 기자들은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첨단장비 도입과 인터넷 매체의 활성화로 신문제작방식이 변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취재부서와 내근부서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취재기자가 지면을 편집하고 꼭 필요한 인원만이 데스크를 보는 서구식으로 바뀔 것이다(지역신문 G).

신문사별로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큰 틀로 보면 부서간 통폐합으로 인원관리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지역신문 E).

취재부서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좋은 기사를 발굴할 수 있다. 내근부

서도 편집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무한히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 오히려 전문적으로 분화될 수 있다(지역신문 H)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취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취재와 내근의 변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지역신문 N).

지역신문 기자들의 전망이 엇갈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2. 편집국 구성원의 위상 변화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인터넷 취재로 외근 부서와 내근 부서 구성원의 위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외근부서는 기능화되는 흐름이 뚜렷하지만 내근 부서는 갈수록 기자적 컬러가 퇴색 되면서 위상이 추락할 것이다(전국지 B).

전 세계 뉴스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부, 경제부, 스포 츠레저부 등 외근 부서의 위상이 날로 높아질 것이다(전국지 C)

인터넷의 특성상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져 외근 취재부서 위상과 영역이 상대적으로 줄고 내근부서는 업무도 더욱 확대되면서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전국지 E)

과거 취재부서의 일을 내근부서의 기자가 맡을 수 있다. 각종 통신 뉴스 등 타 매체 뉴스를 확인하는 기자가 내근으로 전환되는 등 내근부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전국 지 H).

반면에 지역신문 기자들은 외근부서 보다 내근부서의 위상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터넷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소통의 장이된다면 인터넷만으로 취재를 하는 닷컴 팀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지역신문 B).

내근부서 가운데 인터넷 취재와 기사 게재를 담당하는 뉴미디어부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지역신문 C).

기존에는 취재부서가 정보를 독점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인터넷 활성화로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어 때론 내근기자가 취재기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내근부서 구성원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지역신문 G).

위상 변화를 가장 실감하고 있는 기자들은 지역신문 지역기자들이었다. 이들은 취재 외에 광고나 판매 업무까지 맡고 인터넷을 통해 본사 기자들이 지역의 뉴스를 취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데다 연합뉴스 등 통신사에서 하루에도 수십건의 지역기사를 회원 지방사에게 서비스하면서 기자로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기자의 경우 처음 입사 때부터 광고와 판매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 신문 판매는 지대(신문값)를 정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신문의 판매(확장)여부와 관계없이 입사 당시 정한 금액을 지대로 매월 납부하고 있다. 본인의 경우 본사에서 1000부를 내려 보내주고 있으나 지방에서 실질적인 유가독자를 확보하기 어려워 지대 400만 원을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고는 매년 22개 시 군 지역기자들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기자의 고용관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광고를 강요하고 있다(지역신문 Q).

본사에서 연합뉴스 등 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를 지역기자가 쓴 것처럼 크래딧을 달아주고 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기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겠지만 이 때문에 지역기자가 사이비 기자로 전략하는 원인이되고 있다. 기자라는 사명감보다는 사업의 방패막이나 신분 과시용으로 지역기자 제도

가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취재를 열심히 하고 기사를 잘 쓰는 몇몇 기자를 제외하고는 사원이나 다름없다(지역신문 R).

지역기자들은 인터넷 취재로 앞으로 위상이 더욱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현 상태의 취재시스템이나 고용여건이 크게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들었다.

본사에서 지역의 뉴스를 취재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고, 통신사 뉴스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다. 취재와 광고, 판매를 겸하는 업무 관행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위상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지역신문 Q).

지역기자들은 본사와의 불합리한 고용조건 외에도 인터넷으로 인한 취재 영역파괴와 신문사와 통신사의 원활한 네크워크로 위상이 추락했으며 이 같은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위상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제 1 절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가 기자들의 뉴스 생산 활동과 노동 여건, 조직 및 위상에 미치는 영향이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심층 면접 결과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가 기자들의 뉴스 생산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성과 동시성, 정보의 대량 송수신 등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이 업무 효율성을 높여줘 취재의 필수도구가 됐으며 면대면 접촉이나 현장 위주 취재 등 전통 저널리즘의 취재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취재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는 등취재시간을 크게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은 그러나 인터넷 취재가 많은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취재의 주요 수단이 아닌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인터넷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힘들고 기사의 현장 밀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기자들의 이같은 인식은 전통 저널리즘이 뉴 테크놀로지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확인 등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가 전문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기자들은 견해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 취재가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 서 비전문적이지만 기사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인터넷 취재의 노하우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인터넷은 기자들의 전통적인 취재형태인 출입처 취재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이 같은 변화는 전국지 지역기자보다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출입처 취재 방식이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으나 지역신문 기자들은 출입처 방문 횟수가 줄고 출입 방식도 한 곳에 머물면서 여러 출입처를 취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인원이 적어 출입처 한 곳에 상주하는 전국지 지역기자의 취재 방식을 닮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러 출입처를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취재가 가능한 인터넷의 영향과 인력 부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은 과거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가능했던 취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취재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을 가져왔는데, 이는 전국지 지역기자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지역의 뉴스를 먼저 체크해 기자에게 넘겨주고, 기자들이 다른 지역의 뉴스를 손쉽게 취재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입수한 본사 기자가 지역에 기자가 있는데도 직접 취재를 하여 이슈나화제 거리를 보도하는 것은 취재영역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인터넷 취재로 인한 영역 붕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지역신문 지역기자들은 위상 추락의 요인으로 재고돼야할 취재방식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가 보편화되면서 기자와 취재원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취재원을 소수만 관리한다거나 아예 관계를 맺지 않는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 났다. 취재원과 정보원과의 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확인 과 심도 있는 기사작성을 위해서는 취재원의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활용에 따른 취재 시스템 변화는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간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해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는 조직은 다르지만 취재영역이 같기 때

문에 취재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출입처 취재 방식의 경우 인원이 크게 줄어든 탓에 지역신문 기자들이 전국지 지역기자를 따라 가는 형태를 보인 것은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노동여건이었다. 노동 시간은 전국지 지역기자들이 지역신문 기자들에 비해 많았다.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판이 마감되는 밤 12시까지 뉴스를 챙겨야 했지만 지역신문 기자들은 판 마감이 전국지에 비해 4~5시간 정도 빨라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적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국지 지역기자에 비해 노동시간이 적은 지역신문 기자들이 느끼는 노동 강도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인터넷 취재로 일거리가들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역신문 기자들은 달랐다. 이들은 기본 인터넷 취재 업무에다 인력부족으로 편집, 교열 등 1인2역 또는 1인3역의 업무를 하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고 봤다. 인터넷 취재의 편의성이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이 기자들의 노동 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인터넷 취재로 인한 노동 강도는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지역기자는 노동 강도가 높은 부서로 인터넷 취재 의존도가 높은 국제부, 스포츠레저부, 사회부, 인터넷뉴스부 등을 꼽았고 지역신문 기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편집부, 사회부, 사진부 등의 부서를 들었다. 수년 째 계속되고 있는 인력 부족 현상이 지역신문의 노동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두 번째 연구문제인 '인터넷 취재가 노동 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간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는 언론사 조직과 구성원들의 위상까지 변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인터넷 관련 부서가 늘어나고 신문제작의 컴퓨터화, DB 구축 등으로 조사부와 교열부 등 내근부서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신문 기자들은 내근부서뿐 아니라 취재부서까지 통폐합되는 등 조직의 변화가 더 크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는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기사

작성 또한 간편해진 인터넷 취재 환경에 지역신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같은 매체환경의 변화에 대해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인터넷 관련 부서의 인원이 늘고 역할이 커지는 등 조직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지역신문 기자들은 취재부서와 내근부서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조직이 전문화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전국지 지역기자들은 인터넷 취재로 편집국 외근 부서와 내근 부서의 위상 변화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놨으나 지역신문 기자들은 외근 부서 보다 내근 부서의 위상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신문 기자들은 그 이유로 뉴 미디어 관련부서의 기능 강화를 꼽았다. 지역신문 지역기자들은 위상 변화를 가장 크게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취재 외에 광고와 판매 업무까지 맡고 있고, 본사 기자들이 지역의 뉴스를 손쉽게 취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데다 통신사에서 지역 뉴스를 실시간 서비스해 기자로서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터넷 취재가 신문사 구성원의조직 및 위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 간에 차이가 있는가?'란 세 번째 연구문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는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기자의 취재시스템 보다는 노동여건이나 조직, 위상에서 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신문 기자들은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조직 통폐합으로 근무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신문 기자들은 인터넷이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게 사실이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시 말해 인터넷취재가 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그런 현상을 고착화시켜 적은 인원으로도 신문사가 운영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언론은 지역 실정을 꿰뚫는 밀착형 보도와 여론 선도를 통해서 지역 발전과 문화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서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앞장을 서야 한다. 이는 지방신문의 존 립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광주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은 그 역할에 충실하다고 할 수 없다. 지역신문 기자들이 취재와 편집, 교열까지 맡는 이른바 '1인 3역'의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일상화됐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감원 사태로 빚어졌던 이 같은 근무형태는 요즘에도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인력을 대거 충원할 만큼 경영 여건이 호전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지역신문들이 감축된 인력으로도 신문을 제작할 수 있는 '내성'을 가지게 되면서 인력 충원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취재도구가 이러한 내성을 유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광주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이 지역언론 창달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충원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신문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인터넷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제 2 절 제 언

본 연구는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가 영역은 같지만 조직이 다른 기자들의 취재 시스템과 노동 여건, 조직, 위상 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토론을 함께 사용하지 못했다. 포커스그룹 토론이 일대일 심층 인터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슈에 대한 의견대립이나 이해의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인터뷰 대상자를 전국지 지역기자와 지역신문 본사 기자, 지역기자 등 세 부류로 나눠 선정했다. 그러나 전국지 지역기자의 경우 광주에서 활동하는 총 18명 가운데 11명을 대상자로 선정한 데 반해 지역신문은 10개 신문사 가운데 5개 신문사로 제한하고 그 숫자도 전체 지역신문 기자(지역기자 포함) 300여명 가운데 18명 만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18명의 인터뷰 내용이 전체 지역신문의 현실을 반영할 정도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느냐의 문제를 갖는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구 방법에 있어서 심층 인터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연구의 보완적 방법으로 인터뷰 항목을 서베이로 바꿔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질적 인 연구에서는 소표본, 즉 모집단을 나타내는 대표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방법인 서베이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광주지역 5개 신문사 기자의 인터넷 취재 이용도와 뉴스 생산 활동의 인식에 국한됐지만 앞으로의 연구는 분석대상의 폭을 넓혀 인터넷 취재의 영향이 지역언론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기자들의 인터넷 취재에 대한 인식을 확인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인식이 기사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실제 뉴스의 내용분석을 통해기자들의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I. 국내문헌

#### 1. 학위논문

최재호(2003). 「지방신문에 대한 언론인과 독자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조선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일반논문

- 강상현(1996). 신문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노동과정의 변화. 「한국언론학보」, 39 권. 5~51.
- 권상희(2004). 인터넷미디어 뉴스 형식 연구:온라인 저널리즘의 기사 구성 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8 권 4 호, 306~357.
- 권상희·김익현(2005). 인터넷 신문 기자들의 기사 취득 경로와 상호작용 활동 연구:대화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6 권, 309~343.
- 김사승(2003). 인터넷이 신문저널리즘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연구:신문 저널리즘의 취재보도활동 차원에서. 「한국언론학보」, 47 권 1 호, 56~82.
- 김일(2000). 출입처 파괴와 편집보도국 조직 변화. 「신문과 방송」351호, 31~35. 박선희(2001). 인터넷신문의 뉴스특성과 대안언론 가능성. 「한국언론학보」, 45 권 2 호, 117~155.
- 박선희(2002). 대안언론으로서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능성. 「유네스코 정보사회 성

- 찰포럼 발제문」, http://i\_forum. unesco. or.kr/
- 박재영(2005). 기자의 탄력적 재배치-뉴스의 선택과 집중. 「신문과 방송」, 2005 년 1월호, 38~42.
- 양승혜(2006). 변화하는 뉴스생산 시스템. 「신문과 방송」, 2005년 6월호, 101~107.
- 오수정(2005). 「한국의 언론인 2005」(조사분석 2005-01). 서울:한국언론재단.
- 윤석홍·박재영(2002). 온라인 저널리즘: 수용자의 사회현안 토론 참여에 대한 기자 와 수용자의 인식 조사. 「한국학술논총」, 방일영 문화재단.
- 윤영철(2001).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스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7권, 182~213.
- 이김준수(2005). 뉴스흐름을 변화시키는 인터넷. 「신문과 방송」, 2005년 7월호, 162~165.
- 이동근(2004).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다양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언론학보」, 48 권 4 호. 218 ~ 243.
- 이원락(2005). 뉴미디어 시대에 기자란 누구인가2. 「열린미디어 열린사회」, 2005 겨울호, 228~231.
- 이의정·민형배(2002). 광주전남 언론인의 정체성 위기와 극복 방안-지역 신문 산업 구조와 지방신문기자의 정체성. 「2002년 한국언론학회 쟁점과 토론」, 31~59.
- 임영호(1998).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스노동의 성격 변화. 「언론과 사회」, 22 호, 6~39.
- 조동시(2005). 변화하는 뉴스생산 시스템. 「신문과 방송」, 2005년 6월호, 116~120.
- 조영현(2003). 「한국의 언론인 2003」(조사분석 2003-02). 서울:한국언론재단.
- 차재영·강미은(2004). 지방신문 특화전략-한국 지방신문 산업의 위기. 「한국신문 협회」, 24~32.
- 최영(2002). 온라인 신문에서의 시민저널리즘 가능성 연구:일상적 실천을 중심으

로. 「한국언론학보」, 46 권 6 호, 33~65.

한국언론연구원(1996), 가구 구독률 조사,

한국언론재단(2002). 가구 구독률 조사.

한균태·반현(2001). 한국 온라인 저널리스트의 역할 인식과 직업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술논총」, 방일영 문화재단.

황용석(2005). 조직특성에 따른 온라인저널리스트의 역할과 조직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3권, 129~159.

허행량(1999). 디지털시대의 인사모델-한국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언론 재단 연구서 1999-08, 11~43.

#### 2. 단행본

김경희·이재경·임영호(2003). 「인터넷 취재 보도」. 서울: 한올아카데미.

황용석·권혜진(2002). 「인터넷 활용 취재론:온라인 검색 전략과 기법」. 한국언론 재단.

# 3. 신문기사

광고주협회 매체조사(2006. 11. 3). 「미디어오늘」.

광주지역 지방신문사의 재무상태(2001. 4. 25). 「시민의 소리」.

지역언론 급여 실태(2006. 4. 12). 「미디어오늘」.

인턴기자 채용·아웃소싱설···흔들리는 사진부(2006. 3 1). 「한국기자협회보」.

편집기자 추이 조사(2006. 3. 31). 「한국편집기자협회보」.

### Ⅱ. 국외문헌

- Bartlett, D.(1994). The Soul of a news machine: Electronic journal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Federn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47(1).
- Cochran, W.(1997) Journalism's new geography: How electronic tools alter the culture and practice of newsgathering. *Electronic Journal of Communication*, 7(2). [http://www.cios.org/getfile WCochran\_V7N297]
- Davis, Richard(1999). The Web of Politics: The Internet's Impact on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ost, C. (2002). reporting for journalists. London: Routledge
- Garrison, B(1995). computer-assisted reporting. Hillsdale, New Jersey:LEA.
- Garrison, B(1997). Online services, Internet in 1995 newsrooms.

  Newspaper Reserch Journaj. 18(3-4), 79~93.
- Garrison, B(1998). computer-assisted reporting. *Mahwah*,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 Louisa & E. Lincoln James. (1998). Interactivity Reexamined: A

  Baseline Analysis of Early Business Web Sit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2*(4): 457~474
- Hall, Jim.(2001). Online Journalism-A Critical Primer, London: Pluto Press.
- Harper, C.(1998). Journalism in a digital age. [http://media-in-transition. mit.edu/conferences/democracy/harper.html]
- Kawamoto, K.(1998). Making sense of the new on-line environment in the context of traditional mass communication study. In Diane L.

- Borden & Kerric Harvey(Eds), The electronic garpevine: Rumor, reputation, and reporting in the new on-line environment. *Mahwah*,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och, T.(1991). Journalism for the 21th century: Online information, electronic datdbases, and the news. New York:Praeger.
- Lasica, J. D.(1996). Net gain. American Journalism Review.
- Massey, Brian L. & Levy. M.(1999). The use of on-line journalism in asain countri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6(1), 138~151.
- Miller, L. C.(1998) Power of Journalism: Computer-Assisted Reporting. Fort Worth, Texas: Hart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Pavlik, J.(1997). The future of on-line journalism: A Guide to who's doing what. Columbia Journalism Review, July/Aug, 1997.
- Pavlik, J.(2001). journalism and new med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Pugh, M. J.(1996). Re:A question for you all. [CARRL@ulkyvm.louisvilee.edu].
- Schultz, T. (2000). Mass media and the concept of interactivity: an exploratory study of online forums and reader e-mail. *Media, Culture & Society 22*, 205~221.
- Sigal, L. V. (1987). Who? :Sources make the news. In Manoff, R, & Schudson, M.(Eds), Reading the news. NY: Pantheon Books
- Singer, J. B. (1997). Changes and consistencies: Newspaper journalists contemplate online future. *Newspaper Research Journal*, 18(1-2), 2~18.
- Singer, J. B. (1998). Online Journalists: Foundationss for Research into Their Changing Roles.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 Communication, 4(1), http://www.ascusc.org/jcmc/vol4/issue1/singer.html
- Singer, J. B. (2001). The Metro Wide Web: Changes in newspaper's gatekeeping role onlin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8(1), 65~80.
- Sproull, L. & Kiesler, S. (1991). Connections: New ways of working in the networked organization. Cambridge: MIT Press.
- Tuchman, G.(1978) The news net. Social Research, 45(2), 256~266.
- Volkmer, Ingrid.(1998). "Journalism in cyberspac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 paper presented at the Journalism in Cyberspace Symposium in MIT on Nov. 12.
- Williams, W. S. (1998). The bulurring of the line between advertising and journalism in the non-line environment. In D Bordon & K. Harvey(Eds), The electronic grapevine: Rumor, reputation, and reporting in the new on-line environment(pp. 31~41),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부 록

## 인터뷰 질문

#### (전국지 지역기자, 지역신문 본사 기자 및 지역기자 공통)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본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터넷 취재가 언론인의 취재시스템과 노동, 조직 및 위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인터뷰는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인터뷰에 응하신 분들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인터뷰 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인터뷰에 응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I. 가상공간인 인터넷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메일과 정보검색, 기사 소재 발굴, 여론 탐색 등 인터넷은 언론인들의 뉴스 생산 활동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온라인 이용 정도에 대해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1.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정보검색이나 이메일, 사내통 신망 이용 등 전반적인 인터넷 사용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 2. 하루 평균 뉴스 관련 사이트 이용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뉴스 관련 사이트는 네이버 등 포털뉴스, 오마이뉴스 등 대안매체, 타사 홈페이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3. 업무와 관련 가장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는 무엇입니까? 포털뉴스나 한국언론재단 뉴스검색 사이트인 KINDS, 국내 학술 DB, 국내 인명 DB, 개인 홈페이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4. 언론사 뉴스사이트나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 토론방, 카페, 블러그 등을 취재 또는 업무에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왜 활용하는지 그 이점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5.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등) 시작 화면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 사이트, 회사 홈페이지, 사내 통신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즐겨찾기 항목은 몇 개 정도 있으며 이 가운데 업무와 관련된 사이트는 몇 개나되십니까?
- Ⅱ. 인터넷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언론인들의 취재 및 업무 환경을 바꿔놓았습니다. 인터넷 취재로 인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1. 인터넷으로 취재 및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넷 취재가 일반화되기 이전과 이후의 취재 활동을 비교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출입처나 취재 방법, 노동여건이나 조직의 변화 등 가장 큰 변화부터 작은 변화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 2. 취재과정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인터넷 취재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십시오.
- 3. 인터넷이 취재 및 업무의 효율성과 융통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4. 인터넷 취재가 전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5. 인터넷 취재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6. 스스로 판단하기에 정보검색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을 통해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은 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 7. 인터넷 취재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Ⅲ. 다음은 인터넷으로 인한 취재 시스템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입처나 취재 영역, 취재시간 단축, 취재원과의 관계 등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1. 귀하가 현재 맡고 있는 출입처는 몇 곳입니까? 그리고 하루 평균 출입처에 머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2. 하루 평균 이메일로 전송되는 보도자료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 가운데 실제기사화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 3. 취재나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출입처 홈페이지를 검색합니까?
- 4. 인터넷 취재로 출입처 취재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5. 출입처나 또는 커버하고 있는 지역의 뉴스를 본사(편집국)가 먼저 알고 취재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형태입니까? 여기서는 통신사 뉴스가제외됩니다.
- 6. 인터넷 취재로 취재영역이나 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있다면 왜 그렇게 변했다고 보십니까?
- 7. 지역에 기자가 있는데도 본사에서 기자를 파견해 지역의 이슈나 화제 거리를 취재해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8. 담당 지역이나 출입처 외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자의 출입처 뉴스를 인터넷으로 취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9. 인터넷 취재로 과거에 비해 취재시간이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늘거나 줄었다면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10. 인터넷 취재로 정보원이나 취재원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Ⅳ. 인터넷이 매체산업 구조를 바꿈으로서 언론인들의 노동 여건도 변했습니다.

인터넷 취재가 언론인들의 노동 시간이나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1. 귀하가 근무하는 언론사의 마감시간은 언제입니까? 마감시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2. 인터넷 취재로 과거에 비해 업무의 종류와 업무량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 3. 인터넷이 언론인들의 노동 시간과 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 4. 노동시간과 강도가 늘었거나 줄었다면 어떤 요인 때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5. 편집국에서 노동강도가 가장 늘어난 부서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6. 인터넷 취재로 인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 7. 인터넷이 향후 언론인들의 노동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V.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테크놀로지는 언론사 조직 및 구성원들의 위상도 바꾸었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또는 사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인터넷 취재로 편집국 조직 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 2. 편집국 조직 가운데 편집부, 교열부, 사진부, 조사부의 인력과 조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 3. 인터넷 취재로 향후 편집국 조직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취재부서와 내근부서를 구분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4. 인터넷 취재로 일부 부서의 경우 인력이 줄고 부서가 통폐합되는 등 변화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취재부서와 내근부서 구성원들의 위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십니까?
- VI. 다음은 개인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귀하의 근무 부서와 지위를 말씀해주십시오.
- 2. 귀하의 기자경력은 몇 년이며, 현 회사에서의 근무 년수(경력)는 몇 년입니까?
- 3. 나이와 성별을 말씀해주십시오.

\*\*\*인터뷰에 성의껏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터뷰 추가 질문 (지역신문 본사 기자)

- 1. 취재 이외에 편집이나 교열 등 다른 업무도 맡고 있습니까? 맡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열을 맡고 있다면 업무는 어떤 방식입니까? 그로 인해 노동여건은 어떻게 변했다고 보십니까?
- 2. 인터넷 취재가 지역언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을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견해와, 지역언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인터뷰 추가 질문 (지역신문 지역기자)

- 1. 취재 외에 광고나 판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맡고 있다면 언제부터 입니까? 이 같은 업무 변화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지방면 기사 가운데 '연합뉴스' 크레디트를 빼고 지역(주재) 기자 이름을 달아서 게재되는 기사는 한 달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 3. 본사에서 직접 취재하거나 통신사 제공 뉴스를 지역(주재) 기자 이름으로 싣고 있는 것에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4. 인터넷 취재로 지역(주재)기자의 위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십니까?